

22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01.24 (+20.61)	↓ 코스닥	677.01 (-3.66)
↓ 금리 (연·달러)	2.816 (-0.013)	↑ 환율 (원·달러)	1406.40 (+8.90)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생산·내수·수출 ↓... 트럼프 2기 출범땀, 제조업 전망 ‘암울’

경고등 켜진 한국경제

산업연구원, 전문가 서베이 지수 내달 업황전망 PSI 기준치 아래로
산업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은 “트럼프 2기, 韓 제조업에 부정적”



정의선, 도요타 아키오와 한 달 만에 재회
모터스포츠를 매개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과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자동차그룹 회장이 일본에서 다시 만났다.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월드벨리챔피언십(WRC)' 현장에서 정 회장은 도요타 가주레이싱팀의 서비스 파크를 찾아 경기 현장을 둘러보고 아키오 회장과 대화를 나눴다.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1위와 3위 수장인 두 회장이 만나기는 지난 10월 27일 한국 용인에서 열린 '현대N x 도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 이후 두번째다. 정 회장(왼쪽)과 아키오 회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우리 경제의 기초산업인 제조업의 생산, 내수, 수출이 동반 하락할 것이라던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산업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은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국내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Professional Survey Index)'를 발표했다. 이번 PSI는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 133명이 이달 11일~15일까지 184개 업체에 대해 전망한 결과다. 조사 항목은 개별 산업 업황을 비롯해 국내 판매와 수출, 생산·재고수준, 투자, 채산성 등이다. 항목별 응답 결과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상회하면 개선 의견이, 하회할 경우 악화 의견이 각각 많음을 뜻한다.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전월 102에서 96으로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며 하회 전환했다. 업황 전망 PSI가 기준치를 하회한 건 1년 전인 202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하락세다.

내수(98)와 수출(97) 역시 기준치를 동반 하회하는 등 전월 대비 추가 하락세를 보이고, 생산(96)도 3개월 연속 하락세다.

투자액(97), 채산성(91), 제품단가(95) 등 공급·수익 여건 또한 기준치를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유형별 업황 전망을 보면, 기계(103) 부문이 기준치 이상을 유지했고, ICT(90)·소재(85)부문은 동반 하회했다. 전월 대비로 ICT는 4개월 연속 하락, 소재는 3개월 만에 다시 하락했다. 세부업종별로는반도체(124)·자동차

(107)·조선(113)·바이오/헬스(110)업종이 100을 상회한 반면, 디스플레이(73)·전자(81)·기계(88)·화학(88)·철강(78)·섬유(88) 등 다수 업종이 상당폭 하락했다.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 PSI도 2개월 만에 다시 기준치에 그쳤고, 전월

(105)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 내수(101)가 전월과 달리 소폭 상승한 반면, 수출(105)이 전월에 이어 추가 하락했고, 생산(100)도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재고(113)가 전월과 달리 상승 전 호나하고, 투자(100)는 2개월 연속하락한 반면, 채산성(102)이 전월과 달리 상승 전환했다.

유형별 11월 업황 PSI는 ICT(97) 부문과 소재(95)부문에서 기준치를 하회 전환하고, 기계부문은 기준치를 소폭 상회 유지했다. ICT는 202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보다 아래였고, 소재 역시 전월과 달리 기준치를 동반 하회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조선·섬유·바이오/헬스 업종이 100을 상회한 반면, 디스플레이·휴대폰·기계·화학 업종은 동반 하회했다.

산업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은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우리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업종별 부정적 영향은 철강·자동차·화학·섬유 등에서 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국내 제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관련된 설문 결과, '부정적'이란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은 63.5%인 반면, '긍정적'이란 답변은 5.6%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23.0%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주요 업종별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칠 부정적 영향은 철강(5점 척도, 4.1) 업종에서 가장 컸고, 자동차(3.9), 화학(3.4), 섬유(3.4) 등 특히 소재 업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2.6), 디스플레이(2.9), 바이오·헬스(3.0), 반도체(3.1) 등 ICT 업종을 중심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비교적 덜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경제 '휴앤휴' 2024 입주 아파트 조경 우수단지 시상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메트로 아파트 조경 대상 휴앤휴(休&休)'의 주인공을 선정합니다.

올해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휴앤휴'에 소개된 아파트 가운데 ▲조경혁신상 ▲친환경단지상 ▲스마트환경상 ▲미래가치대상 ▲테마조경상 ▲브랜드혁신상 ▲커뮤니티혁신상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조경, 스마트 첨단 기술의 융복합 구현, 녹지공간 등 아름답고, 편안한 아파트단지 선정을 통해 건설사와 입주민을 응원하기 위한 조경대상입니다.

'2024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앤휴'는 올해 소개된 30여곳 입주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대학 교수 등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심사방식 : 소개 아파트단지 대상 심사위원 합의로 선정
- ◆ 수상명 : 대상, 조경혁신상, 미래가치상, 스마트환경상 등
- ◆ 수상작 선정 : 11월 27일



국세수입 감소폭 OECD 2위... 올해 29조 '세수핑크'

작년 GDP 대비 세수비중 28.9% 3.1%p 줄어, 회원국 평균 -0.1%p

지난해 우리나라가 겪은 이른바 '세수핑크'가 최근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비교에서도 확인됐다. 전년 대비 국세(稅)수입 감소 폭이 회원국 중 2번째로 컸다.

24일 OECD가 홈페이지 상단에 게시한 '회원국 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이 28.9%로 집계됐다.

2022년(32.0%)보다 무려 3.1%포인트(p) 줄어들었다.

반면,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세수 평균은 작년 33.9%로 전년(34.0%)과 비교해 -0.1%p를 기록했다. 총 38개 회원국 중 호주와 일본(미집계)을 제외한 36개국 평균이 2년간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OECD는 "비중 관련(마이너스) 3%p대의 큰 감소(변동 폭)가 한국 등 3개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칠레가 -3.2%p로 감소 폭 1위, 한국

이 -3.1%p로 2위, 이스라엘이 -3.0%p로 3위다.

OECD는 비교대상 36개국의 절반인 18개국은 해당 비중이 2022년보다 상승했다고 전했다. GDP 증가 속도에 비해 세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걷힌 것이다. 그중 17개국은 감소했고 1곳(이탈리아)은 변동 없었다.

또 한국 등 3개국과 대조적으로, 룩셈부르크·콜롬비아·튀르키예에서 2.5%p 이상의 비중 증가를 보였다고도 했다.

지난해 기준 프랑스가 43.8%로 경제 규모 대비 세금 비중이 가장 컸다. 그 뒤를 덴마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이었다.

비중이 가장 작은 나라는 멕시코(17.7%)였다. 우리나라보다도 비중이 작은 미국은 25.2%로, 전년(27.6%)과 비교해 2.4% 하락했다. 한국과 미국은 작년 비중 순으로 각각 28위, 30위에 자리했다.

한국은 지난해 56조 원대의 세수결손

에 이어 올해도 29조 원대의 결손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법인세수의 급감이 주요 원인이다.

이달 중순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월간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국세수입이 1~9월 기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이 중 법인세는 무려 17조 4000억 원 났다.

지난달 하순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세수결손이 이어지면 3년 만에 100조 원 가까운 결손으로 차기 정권까지 재정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부자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세수결손은 고착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뉴스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安 “단일화 과정서 명태균 도움 안 받아” /사진 뉴시스
▲민주, 홍철호 정무수석 사퇴 요구... “사과로 끝날 일 아냐”

▲민주 “김건희 특검 수용 않는 개각은 물타기용”
▲정부, ‘우크라 곡물로 식량부족국 지원’에 84억원



▲여, 민주 4차 장외 집회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본격화 신호탄” /사진 뉴시스
▲공무원 아빠 육아참여 늘린다...출산 휴가 10일→20일 확대

환노위 반발...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적용' 무산되나

여야 반도체특별법 이견

국민의힘 '근로시간 특례' 삽입
"미국·일본도 비슷한 제도 시행"

민주당 "저녁 있는 삶 위한 정책
노동시간 확대 허용은 어불성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담긴 가운데, 이 조항이 법안이 당초 상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 검토가 고려돼 원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글로벌 경쟁사 사이에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영계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국회에서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경직된 근로시간제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반도체 경쟁국인 미국과 일본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이철규(오른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안과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도 경영계 주장에 힘을 보탤다.

미국은 일정 기준 연간 임금 소득 이상인 사무직·전문직에게 초과근무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성과에 따른 보상을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제션(White Collar Exemption)을 시행 중이고, 일본은 지난 2019년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라는 이름의 일본식 화이트칼라 이그제션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사위원회도 화이트칼라 이그제션 제도를 검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이철규 의원 발의안)에 '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삽입했다. 조항에 따르면 1주에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게 일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간 서면합의로 휴게와 휴일, 연장·야

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발은 예상할 수 있었다.

주52시간제는 장시간노동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핵심 노동정책이었다. 민주당 원내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근로기준법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알맞다고 판단하고 조항을 따로 빼서 환노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환노위는 야당 중에서도 노동계 출신 의원이 많고 노동계의 압박도 거센 곳이라서 해당 조항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총 화합혁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악명 높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산업의 노동자들은 이미 현 법체계 내에서 최대한도의 노동시간 유연화를 적용받고 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을 장려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육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이미 실패로 끝난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 논란을 재점화하려는 잔꾀에 불과하다"며 "SK하이닉스가 현 근로시간제도 하에서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 시간이 문제라면 현 제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4항은 특별한 사정(▲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일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2년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은 2021년 2116개소로 2021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중 0.26% 수준에 그쳤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삼성 '자사주 효과' 2500선 회복 했지만 밸류업·2000억 펀드에도 효과는 '미미'

위기의 코스피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의 '자사주 효과'로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했지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9월 지수 발표 이후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발표했으며, 20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지원을 약속했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저조한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코스피는 3.49% 상승하면서 2500선을 회복했다. 특히 신저가를 경신하던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4.67% 올랐다.

문제는 또 다른 증시 상승 동력으로 꼽히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밸류업 지수의 상승 폭은 2.32%였으며, 지난 9월 30일 출시 이후 수익률은 -4.71%에 그친다. 이달 4일 밸류업 ETF·상장지수증권(ETN) 등 13개 상품이 상장하고, 지난 18일 거래소와 유관기관들이 밸류업 펀드에 2000억원 투자하기 시작했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못한 모습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발표, 밸류업 펀드 출시, 엔비디아 실적 등 굵직한 이벤트들을 소화하며 한 주간 코스피는 3.49% 상승했다"며 "그러나 코스피의 상대적 강세는 삼성전자의 급반등 영향으로 전반적인 투심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들은 지난 8월부터 이달 22일



ChatGPT로 생성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자들의 낮은 관심' 이미지.

"지난주 코스피 상대적 강세는 이벤트·삼성전자 급반등 영향
투자자 전반적 투심 아직 부족"

까지 삼성전자를 약 18조4890억원 밀면서 삼성전자의 신저가 경신을 주도했다. 이에 지난 14일 삼성전자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향후 1년간 10조원(시가총액 대비 2.8%)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으며, 발표 직후였던 15일에는 7.21%, 18일에는 5.98%씩 급등하면서 다시 '5만전자'로 복귀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난 5월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안내공시와 본 공시를 모두 포함해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81개사에 그쳤다. 이날 기준 한국거래소 상장 기업 2619곳(코스피·코스닥) 중 3.09% 수준이다.

이후 지난 18일 거래소는 내달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 12월 6일까지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이행한 기업에 대상으로 밸류업 지수의 연내 구성종목 특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지수 발표 이후 밸류업 공시를 이행했거나 연내 공시를 계획 중인 기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리밸런싱이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이번 변경에서는 특별 편입만 이뤄지며 편출은 따로 진행되지 않는다.

권병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편입이 결정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권 연구원은 "편출 없이 편입이 이뤄지는 경우, 지수 종목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각 종목에 배정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줄어든다"며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과 함께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어, 삼성전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업 지수 입장에서 투자 요인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밸류업 지수 선물 약정이 부진한 점도 아쉽다는 의견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금융위, 이번주 제4인행 가이드라인 공개

더존뱅크·소소뱅크 등 5곳 참여
'개인사업자 대출' 포용금융 포부
자금조달의 안정성 등 중점 평가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자리를 위한 '쟁탈전'이 이번주 막을 올린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을 차지하기 위해선 혁신 서비스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허들 통과'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중 제4인뱅의 심사기준을 공개한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심사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연내 희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5개 컨소시엄 '제4인뱅' 도전장

현재 제4인터넷은행 심사에 참여할 뜻을 드러낸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다섯 곳이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표로 한다.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을 확대해 포용금융을 실천했다면 제4인터넷은행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는 포석이다.

더존뱅크는 전자적자원관리(ERP) 업체인 더존비즈온을 주축으로 하는 컨소시엄으로 신한은행과 DB손해보험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KCD)와 우리은행, 우리카드가 참여해 추진한다. 유뱅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렌딩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의료업체 루닛, 자비스엔빌리즈(브랜드명 삼점삼), 트래블월렛, 현대대상, 현대백화점이 참여하고 IBK기업은행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소소뱅크는 35개 소상공인 유관 단체와 11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가 연합했고, AMZ뱅크는 농업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한다.

◆'혁신+실현성' 예비인가 여부 판갈음

앞서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발표당시 은행법령상 인가 기준을 적용해 ▲자본금과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와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과 임원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밖의 물적시설 ▲외국 금융회사, 외국 금융회사의 지주회사 신청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 중 ▲자본금과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와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사업계획은 혁신성·포용성·안정성·경쟁촉진·해외진출로 나뉜다.

당국 내부에서는 제4인터넷은행 심사 시 우선 자본금과 자본조달의 안정성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고있다.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중·저신용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공급하기 위해선 안정적으로 재무건정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계획 중 혁신성과 포용성은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여부를 판갈음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유리 기자 yul115@

금·비트코인 고공행진

러-우 확전 우려에 ‘金 랠리’... “내년말 2900달러 가능성”

(트로이온스당)

푸틴,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
단기투자 자금, 안전자산 이동
“금 수요 증가 당분간 이어질 것”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확산 우려로 안전자산인 금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서울 종로구 한국 금거래소에 전시된 골드바. /뉴시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상승세가 꺾였던 금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미국·영국산 미사일이 사용된 데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쟁 위기감이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를 끌어올렸다.

24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22일 트로이온스당 2712.2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전일보다 37.30달러(1.39%) 상승한 가격으로, 국제 금은 5일 연속 상승해 지난 5일(현지시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간 거래로도 지난 2023년 3월 이후 가장 빠른 상승이다.

이번 금 가격 상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핵무기를 동원할 수

있다는 러시아의 위협에 안전자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영국은 각각 지난 19일과 20일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에 미국산·영국산 전술 탄도미사일 공격에 나섰고, 지난 21일 러시아는 핵탄두 탑재가 가

능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사용해 반격에 나섰다.

또한 같은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자국을 공격했다면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고,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핵 교리 수정안’에도 서명했다.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핵무

기’ 카드를 꺼내들면서 전쟁 위기감이 커졌다

전쟁 위기감 고조로 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미 대선 직후 7% 가까이 내렸던 금 가격은 하락을 대부분만 회하며 ‘금 랠리’를 재개했다.

앞서 금 가격은 올들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하락 전망 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는 ‘금 랠리’를 이어갔다.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 10월 30일에는 연초(2073.40달러) 대비 35% 가까이 상승한 온스당 2800.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어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고, 함께 치러진 미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레드 스윕’이 현실화해 금 가격 상승에는 제동이 걸렸다.

‘연방정부 재정 확대’, ‘관세 인상’ 등 트럼프가 내걸었던 공약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지난 5일 2749.70

달러였던 금 가격은 15일 2570.10달러까지 내렸다.

전쟁 위기감으로 금 가격 상승이 재개되면서, 전문가들은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금 수요 증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귀금속 거래소 엘리지언스 골드의 알렉스 엡카리안 최고운영책임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충돌이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이에 따라 단기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UBS 파이낸셜 서비스의 솔리타 마르첼리 최고투자책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위험 회피 수단으로 금의 역할이 늘고 있다”며 “정부 부채 수준 증가 등 정치적 압력에 대한 위험 회피 선호도 고려하면, 금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금 가격이 2025년 말까지 트로이온스당 29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트럼프 2기, 친가상화폐 인사 포진... 비트코인 열기 고조

가상자산 전담 보좌관직 신설 검토
“10만 달러 시간문제... 20만도 가능”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점을 돌파하는 가운데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빙셀라운지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사상 첫 10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가상자산에 친화적 규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여기에 가상화폐에 보수적인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까지 사임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의 열기는 더 높아지고 있다.

24일 가상자산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9만86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2일 9만9000달러 돌파 후 차익매물 실현으로 9만7000달러대까지 떨어졌지만 전일 새벽 한때 9만9655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장중 최고가를 또 다시 경

신했다.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것은 강도 높은 규제로 가상자산 업계를 압박했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사임이다.

SEC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성명

을 통해 “겐슬러 위원장이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사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도 X(옛 트위터)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난 책임을 맡겨준 데 대해 감사했다”며 “SEC는 사명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법을 집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1년 SEC 수장을 맡은 겐슬러는 그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단속과 강한 규제를 추진해온 인물이었다. 오는 2026년까지 임기를 남겨 두고 있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관례대로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가상화폐 업계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차기 SEC 위원장 후보로는 댄 겐러거 로빈후드 최고법률책임자와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과 헤스트 피어스현 SEC 위원 등 친(親)가상화폐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 위원회가 백악관 내 가상자산 정책을

전담하는 보좌관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 직책은 일명 ‘가상화폐 차르’로서 연방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미국 대통령은 물론 타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상자산 규제 완화로 투자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우호적이라며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비트코인 10만달러 돌파가 기간문제라는 분석이다.

미국 웰스트리트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현재 10만 달러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제프 켄드릭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최대 12만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지난해 비급여 진료적자 2조 육박... 서울 등 과잉진료 의심

4세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118%
서울지역, 타 지역대비 진료비 높아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 현황: 염좌 및 긴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염좌 및 긴장 치료를 받은 4세대 실손보험 환자의 진료비 중위값은 26만4000원, 비급여 진료비는 12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비수도권 지역의 진료비 22만5000원과 비급여 진료비 9만10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위 25% 기준으로는 서울에서 치료 받은 4세대 실손보험 환자들의 비급여 진료비가 34만8000원으로 경기지역 20만원, 비수도권 28만2000원보다 높

았다. 또한 4세대 실손보험 환자들 가운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중위값은 각각 28만1076원, 12만9600원으로 전체 의료기관(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24만980원, 10만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들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상위 25%에 속하는 환자의 비중은 4세대 실손보험 환자가 38%의 16% 보다 높았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경선 연구위원은 “의료기관 종별 기준으로 병원, 그리고 서울지역의 경우 과잉진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잉진료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중장기적인 비급여 관리방안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비급여 관리를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험료 할인·할증을 강화하고 있으나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실손보험으로 인한 비급여 진료 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18%, 적자 규모는 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보험금은 지난 2022년 7조

8587억원에서 2023년 8조126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4세대의 경우 앞선 세대의 실손보험 대비 자기부담비율을 상향하고 보험료 할인·할증을 반영했으나 손해율은 지속 악화하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 2021년 61.2%에서 2023년 115.9%로 상승했다.

전 선임연구위원과 김 연구위원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관리 취지는 제한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

‘원 팀’으로 뭉친 K-조선... 미국發 ‘LNG 특수’ 선점 나선다

美 시장 공략, 미래 선도 준비
한화오션, 친환경 선박 시장 주도
HD현대중,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
삼성중, 수주 경쟁서 기술우위 확보

아시아를 중심으로 LNG 수요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글로벌 LNG 수요가 향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내 조선업체가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며 차세대 LNG 운반선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기조가 국내 조선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LNG 수출 재개를 추진함에 따라 LNG 운반선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 조선사들은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앞세워 ‘트럼프 특수’를 누릴 준비에 나서고 있다.

친환경 기조를 강조해 온 바이든 대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24년 인도한 17만 4천㎡급 LNG 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통령은 신규 LNG 시설 건설에 제동을 건 상태다. 글로벌 LNG 시장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LNG 수출이 기후변화와 경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뒤집어 관련 프로젝트가 개발에 돌입할 경우 100척 이상의 LNG선 신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적당 4000억원에 육박하

는 LNG선 가격을 고려했을 때, 연간 20조원으로 추정된 미국 합정MRO(보수·수리·정비) 시장 이상의 특수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화석 에너지 강화를 언급함에 따라 원유·LNG 운송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한국 조선사의 LNG 운반선, 유조선 수주 확대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내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 29척을 한국이 전량 수주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한화오션은 차세대 연료탱크와 무탄소 연료 기술, HD현대중공업은 LNG 냉열활용 기술,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과 FLNG 분야 글로벌 선두 등 지위를 바탕으로 각 사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시장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발 LNG선 특수로 일감 수주가 증가하면 조선업계 수파사이클(조호황기)이 3년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팽배하다. 앞서 업계에선 2027년 이후 수주 물량이 감소해 호황기 대비 꺾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더욱이 8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빚어왔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가 향후 미국 시장 공략에 가속을 붙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양사가 ‘원 팀’을 구축할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다.

한화오션은 지난 22일 KDDX 입찰

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했던 고발한 사건을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인 경찰 수사로 사업 자체가 늦어지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국내 조선업체에 러브콜을 보내며, 양사가 상호 보완과 협력의 디딤돌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MRO 분야에서 한국 조선업을 꼭 짊어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한 만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이 공격적인 투자로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조선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 간 상호 협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의 LNG 운반선 수요 증가와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국내 조선 업계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LNG 운반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적 우위와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AI 기본법’ 형식적 심사에, 기술적 허점... “무용지물 될 것”

국회 채택 ‘AI 기본법’ 심사소위 통과
짧은 심사과정 등 업계·시민단체 반발
“법안 설계에 현장 목소리 반영 부족”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마침내 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 등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108인 전원이 공동발의한 1호 당론법안이다.

필요성이 제기된 2022년부터 여영부 영 미뤄지고 있었던 만큼 고무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대다수 업계 관계자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형식적인 심사를 했다는 혐의와 함께 중요한 쟁점 조항은 빠지는 등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다.

24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처음 심사소위를 통과한 ‘AI 기본법’을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왼쪽)이 이달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국민의힘은 AI 기본법을 처음으로 심사소위를 통과시키며 연내 입법을 준비 중이다. 업계에서는 법안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혐의와 더불어 이미 구형이 된 기술이 법안에 탑재 되는 등 부실한 법안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시스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AI 기본법은 AI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개발·활용·산업육성·약용 등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토대가 되는 기본법안이다. 국민의힘이 통과시킨 법안 외에도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4건 발의한 바 있다. 심사소위까지 통과한 사례는 이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 통과시킨 입법안이 처음이다.

법안을 통과시킨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AI경쟁력 제고와 세대·소득 간 디지털 격차 없는 나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늘 소위에서 통과되었던 법안들이 2024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형식적인 의견수렴과 심사를 거쳤다는 혐의와 최근 업계에서 비판 중인 다양한 기술적 허점을 거대로 수렴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 측은 “국회는 인공지능의 위험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수많은 쟁점을 다루는 이 제정법을 절차적으로 충분히 심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AI 기본법 통과 전 단 두 차례 심사소

위가 개최됐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과방위는 지난 9월 3일 7개 법안을 대상으로 심사소위를 개최했고, 19개 발의안을 대상으로 한 심사소위는 지난 11월 21일 처음 열렸다. 이렇듯 짧은 시간 내 급박하게 진행된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한 충실한 조속 심사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회의록은 마지막 주중 나올 예정이다.

기술적 허점에 대한 비판은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가장 문제적인 요소로 지적되는 것은 AI 사업자에 불법·딥페이크 생성물을 막을 의무를 강화하고, AI 생성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삽입해 명시하도록 한 부분이다.

AI 생성물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모든 관계자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해당 워터마크는 데이터 생성 단계에

서 AI 저작물임을 밝히는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비가시적인 방안이 대다수며 가시화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가시화 했을 때 생성형 AI의 활용 의의가 사라진다는 판단에서다. 비가시적인 방안은 더욱 문제적이다. 실제로 워터마크가 삽입된 AI 저작물은 일반인이 이를 확인할 방안이 없다. 특수한 프로그램을 거쳐 확인해야 하는 만큼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때 워터마크 기법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독풀기(Poisoning Attacks)’ 또한 현재 AI를 이용한 독풀기 기법의 규칙성으로 인해 AI를 이용한 파훼가 이뤄진 상태다.

업계 관계자 A씨는 “현재 AI 저작물과 딥페이크 범죄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워터마크 삽입과 독풀기(Poisoning Attacks) 등 대부분의 기법이 파괴된 상태”라며 “법안 설계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는지, 연구 결과를 확인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eoh@

국내 청소년 SNS 단속 본격화... “육아계정 상업이용도 막는다”

인스타그램·유튜브 새 정책 도입
인스타그램 ‘10대 계정’ 국내 출시

국내에서도 미성년자 소셜네트워크(SNS) 규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은 ‘육아 계정’들을 잇따라 삭제하는 등 단속 강화에 돌입했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내년 안으로 10대 계정을 국내서 출시할 예정이다. 유튜브도 10대 청소년 이용자 활동 제한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최근 사회 주요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청소년

년 SNS 중독과 육아 계정을 상업 활동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인스타그램의 사용자들에 따르면 일부 부모들이 운영하는 육아계정 사전 고지 없이 비활성화되거나 삭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보호정책을 더 강화한 데 따른 조치이다.

그룹 크레용팝 출신 소울은 지난 19일 딸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된 소식을 전했다. 소울은 “우리 짬뽕이(딸

애칭) 인스타그램 계정이 갑자기 비활성화됐다”고 밝혔다. 소울은 “예쁜 사진·영상과 팬분들께서 그려주시는 그림들이 다 없어졌다. 너무 속상하다”고 호소했다.

현희 남편 제이쓴도 지난 20일 자신의 계정에 “준비가 계정 돌려주란 말이야”라며 아들 준범이의 인스타그램이 일시 정지됐다고 밝혔다. 제이쓴은 이후 일시정지가 풀리자 영구 비활성화 조치를 막기 위해 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을 자녀 계정에 올렸다.

이는 최근 청소년 SNS 중독과 육아 계정을 상업활동에 이용하는 사례가 전 세계 사회 주요 문제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이에 인스타그램 최근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인스타그램은 정책상 만 14세 이상의 가입만을 허용하고 있다. 14세 미만 어린이가 가입하려면 계정 소개에 부모 등 성인 관리자가 관리하는 계정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10대 계정’(Teen Account)을 내년 중 한국 등 전세계 국가에 확대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정은 청

소년에게 민감한 콘텐츠 노출을 제한할 수 있고 ‘부모 감독 툴’을 통해 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 사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특징이다.

지난 5일 열린 ‘유스세이프티라운드 테이블’에서 발라 메타 아시아태평양 안전 정책 총괄은 “14~15세는 비공개 계정으로, 부모가 ‘감독 툴’을 통해 기능을 풀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5~16세는 본인들이 원하면 계정을 풀 수 있다”며 “청소년 프라이버시를 위해 메시지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부모가 자녀가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당신만 자산을 관리합니다

오직 한 사람의 소중한 자산을 위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는 금융

투자부터 법률, 세무, 라이프까지
당신을 중심으로
신한의 모든 역량을 모은 특별한 자산관리
신한 프리미어를 만나보세요

신한 Premier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양극화 타개로 新 중산층 시대 열 것”… 맞춤형 정책 준비

尹, 임기 후반기 정책 드라이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논의 양극화 기본 구조적 원인 진단 당부 자영업자, 청년층 등과 자리 마련 신년 초 구체적인 계획 발표 예상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들고 나왔다. 양극화를 해소해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 목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하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윤 대통령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만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뉴스시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임기 전환점 이후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및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양극화 타개”를 국정 과제로 공식화한 바 있다. 국정 초반은 경제활력, 후반은 중산층 활력을 목표로 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해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해의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기조인 양극화 타개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일정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 위해 윤 대통령은 최근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층 등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자리들을 많이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양극화 타개’의 목표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사다리를 주는 정책 과제를 발굴해 중산층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에 현금성 지원보다는 각 연령별, 직군별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같은 기조는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조찬기도회 모두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조찬기도회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면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뛰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일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산층이 두터워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기조는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조찬기도회 모두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조찬기도회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면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뛰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일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산층이 두터워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지지율도 낮은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지율이 낮아지면 하반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양극화 타개’가 제시됐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양극화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이나 내달 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 소득·교육·청년층 일자리 등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망라한 종합적인 양극화 타개 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윤 대통령이 신년 초 직접 발표할 수도 있다.

아울러 ‘양극화 타개’를 위한 국정과제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발굴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통합위 분과 별로 과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 그리고 대통령실 정책실과도 소통을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통합위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李, 오늘 위증교사 1심 선고… 두 번째 사법리스크 고비

금고형 이상 선고 시 리스크 고조 정치권, 유죄 나올 가능성 높게 봐 민주당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이재명 체제’의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열흘 만에 사법리스크의 두 번째 고비를 맞는 셈이다. 게다가 이날은 ‘이재명 2기 지도부’ 출범 100일이다. 만약 이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의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시스

에도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사법리스크는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

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선고된 ‘검사 사칭 사건’은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한 데에 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PD와 공모해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누명을 썼다’는 대답으로 인해 2019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와 여러 번 통화한 뒤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으며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이 통화 녹취록의 극히 일부분을 제시해 공소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25일 법원이 내릴 형량 수위에 쏠려 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이 대표의 정치적 위기는 가중된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만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3년 초과는 10년) 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재판 상황도 좋지 않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하기도 했다.

무죄를 기대했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 역시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25일 이 대표가 법정 구속될 것이라는 발언도 나온다.

민주당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경우, 공직선거법 재판과 마찬가지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그대로 동일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향후 이 대표의 재판은 여러 건 남아있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권 교체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 선고를 받은 후에 민생 행보를 보였지만, 사법리스크의 파장이 커 효과가 희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심이기 때문에 당장은 파장이 없더라도, 이같은 판결이 누적될수록 당내 리더십 손상이 불가피하다. /서예진 기자

신원식 “트럼프,尹에 ‘취임 전 만남’ 3~4차례 제안해”

(국가안보실장)

이후 ‘취임 전 회동하지 않는다’ 방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전 만나자는 제안을 3~4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양 정상은 통화할 때가 배석했다”며 “(취임 전에) 만나자는 말씀을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3~4차례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인선 문제, 국내 문제, 취임 전 준비, 또

여러나라가 사전에 만나기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취임 전에는 외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쨌든 우리 정부는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이 마무리된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과 12분간 통화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과 첫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취임 전에는 회동하

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신 실장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압박 징후는 없지만 준비 마다 단계”라며 “연말 이전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올해 세 차례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5월 발사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 북한이 신행 발사체계를 갖추면서 지휘체계를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시했다. 신 실장은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이 될 수 있고, 푸틴이 북한의 파병에 감사하기 위한 예우 차원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 민감한 현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달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한 것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서예진 기자

尹-말레이시아 정상회담 양국 간 실질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24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11월 24~26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25일 안와르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원광디지털대학교
WONKWANG DIGITAL UNIVERSITY

당신이 꿈꾸는
원더풀 라이프

원더풀 라이프



원광디지털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안내

1차 모집기간
2024.12.01.(일) ~ 2025.01.10.(금)

2차 모집기간
2025.01.22.(수) ~ 2025.02.14.(금)

모집학과

웰빙건강학부 한방건강약선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한국문화학부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실용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

“GTX-C 등 호재에, 입지도 좋지만... 13억 분양가 부담”

〈전용 84㎡〉

부동산 현장 르포

노원구 ‘서울원아이파크’

월계동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공공주택 등 총 3032가구 규모

1호선·경춘선 광운대역 초역세권
84㎡ 분양가 12.9억~14억 수준

지난 주말 방문한 ‘서울원아이파크’ 견본주택. 노원구에서 4년 만에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이 몰렸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서울원아이파크는 약 15만㎡ 면적 중 주거시설 약 7만 7586㎡ 부지에 분양형 공동주택 1856가구, 공공임대 408가구, 레지던스 768실 등 총 303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공동주택 물량을 일반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7층 6개 동, 전용면적 59~244㎡ 총 32타입의 다양한 방을 선보인다.

▲59A㎡ 32가구 ▲72A·B·C㎡ 40가구 ▲74A·B·C㎡ 44가구 ▲84A·B·C



‘서울원아이파크’ 공사 현장(왼쪽부터 시계방향). 견본주택을 찾는 방문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견본주택을 찾는 방문객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전지원 기자

·D·E·F㎡ 672가구 ▲91A·B·C㎡ 176가구 ▲105A·B·C㎡ 336가구 ▲112A·B·C㎡ 176가구 ▲120A·B·C㎡ 336가구 ▲143㎡ 8가구 ▲145㎡ 8가구 ▲159㎡ 8가구 ▲161㎡ 8가구 ▲167㎡ 4가구 ▲170㎡ 4가구 ▲244㎡ 4가구에 입주 가능하다.

지하에는 2개동 단위 독립 커뮤니티를 조성해 프라이빗한 커뮤니티 공간과 전체 동 출입구와 연결된 드롭오프존

(Drop-off zone)을 설치했다. 2개소의 시니어라운지와 3개소의 어린이집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지하철 1호선·경춘선 광운대역 초역세권 입지에 위치한다. 견본주택 관계자는 “광운대역은 2028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개통이 예정돼 강남까지 9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단지는 호텔, 쇼핑몰 등 상업시설과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함께 조성돼 주거 편의성과 직주근접성 등 정주여건이 좋은 편이다. 한천초가 도로로 통학 가능하고 중계동 학원가도 가깝다.

경춘선 숲길에서 단절돼 있는 월계동~광운대역 구간의 사업비 약 103억 원을 HDC현대산업개발이 공공기여로 제공해 7.5km의 숲 산책길도 즐길 수 있다.

방문객 윤민우(43·서울 중랑구) 씨는

“입주할 때가 되면 GTX-C 노선도 개통되는 등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며 “단지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다. 윤씨는 “그럼에도 지금 당장은 청약을 넣기에 가격이 부담된다”고 했다.

전용 84㎡ 분양가는 ▲A타입 12억 8800만~13억 9000만원 ▲B타입 12억 9000만~14억 원 ▲C·D타입 12억 6200만~13억 6300만원 ▲E타입 12억 6500만~13억 8300만원 ▲F타입 12억 6500만~13억 8600만원이다.

‘미미삼(미릉·미성·삼호3차)’ 단지에 거주 중이라는 또 다른 방문객 정기철(74·서울 노원구)씨도 청약을 넣을 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정 씨는 “이 일대에 오랜만에 들어서는 신축이어서 왔는데 단지 내에 생활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앞으로 개발호재도 있는 건 알겠다”며 “그렇지만 14억을 웃도는 분양가가 부담이어서 아들내외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서울원아이파크는 오는 25일 특별 청약, 26~27일 각각 1·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전지원 기자 jiw13@metroseoul.co.kr

4%대 고금리 사라져... 저축은행 금리 연일 하락세

전국 정기예금 평균금리 연 3.5%
이달초비 0.1%p 연초비 0.46%p ↓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97조893억
전년비 10.7% ↓ 대출수요 회복 부진



Chat GPT가 생성한 ‘예금을 거부하는 저축은행 직원’ 이미지.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일 하락세다. 유동성이 충분한 데다 대출 영업 속도가 부진한 영향이다. 오는 연말과 연초 특판 상품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다.

2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정기예금(1년물) 평균금리는 연 3.5%로 집계됐다. 이달 초 대비 0.1%포인트(p) 하락했다. 연초와 비교하면 0.46%p 떨어졌다. 3년물 중장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도 연 2.95%로 28개월 만에 연 2%대로 떨어졌다.

올해 예금금리 상단은 0.5%p 떨어

졌다. 연초 연 4.3~4.4% 수준의 정기예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특판을 출시해도 연 3%선에 그친다. 저축은행은 점진적으로 정기예금 금리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유동성도 충분한 편이다. 올 상반기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은 231.79%다. 법정기준(100%)의 2배를 초과한

다.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소비자 예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다. 이밖에도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은 15.04%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0%와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다.

반면 대출 수요 회복은 부진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저축은행의 여신잔액은 97조893억원이다. 전월(96조5925억원)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해 동기(108조1741억원)와 비교하면 10.7% 감소했다. 아울러 2년전 동기(116조2769억원)와 비교하면 16.9% 쪼그라들었다.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자금만 유지하는 모양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하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뱅크런과 같은 예금 인출 이슈가 발생해도 견뎌낼 수 있

는 정도의 기초체력을 갖춘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금리 인하 기준은 다음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연말과 다음해 초 저축은행의 고금리 특판도 침묵할 것이라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도 변수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내너부브’ 관측이 등장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저축은행권을 중심으로 조달 경쟁에 불이 붙은 바 있다. 당시 연 6.5% 정기예금이 모습을 드러냈던 만큼 이자비용이 순이익 악화에 영향을 줬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말까지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이다”라며 “내년 상반기 업황은 알 수 없지만 무리해서 예금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으며 큰 차이 없거나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SC제일은행 최고 연 4.0% 금리 수시입출금 ‘Hi통장’

SC제일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 시 최고 연 4.0%의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Hi통장’을 내놨다고 24일 밝혔다.

Hi통장은 첫 거래 고객에게 반값계 인사(Hi)한다는 의미와 고금리(High)를 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갖는 수시 입출금형 예금통장이다. 기본금리 0.1%에 더해 우대금리를 최고 3.9%포인트(p)까지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대금리 제공 요건은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최초 고객 신규일 기준 31일 이내 발행 계좌)의 Hi통장 매일 잔액 구간별로 2.4~3.4%p ▲제휴 채널에서의 계좌 개설 시 0.1%p ▲마케팅 동의 시 0.2%p ▲SC제일은행의 프라이어리티 등급 이상 고객 0.2%p 등이다.

Hi통장의 첫 거래 고객의 계좌잔액별 우대금리 제공 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 일로부터 1년 동안 적용되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1년 단위로 연장된다.

또한 SC제일은행은 Hi통장의 출시를 기념하고자 우대금리 조건 중 ‘첫 거래 고객의 계좌잔액별 우대금리’를 올해 말까지 일별 잔액에 관계없이 첫 거래 고객이라면 누구나 3.4%p의 최고 우대금리를 일괄 적용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우크라이나 재건비용 700조... 정부, 韓 건설기업 진출 추진

국내 기업들, 현지진출 저조
서방과 차별화 경쟁력 키워야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비용이 7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방 국가나 기업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지난 10년(2014~23년) 동안 글로벌 건설기업의 누적 활동현황을 보면 튀르키예 기업의 진출 건수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33건)과 프랑스(15건), 이탈리아(1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건설기업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1건씩 총 2건에 그쳤다.

엔지니어링 부문 역시 국내 건설기업의 진출 건수는 2020년 이후 매년 1~2건 정도였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세계은행,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이 참여해 작성한 자료를 보면 우크라이나의 전체 복구 및 재건 요구액 규모는 1차 3485억 달러에서 2차 4106억 달러, 3차 4862억 달러로 늘었다. 러시아의 침공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인적·물적피해가 커진 탓이다.

건산연은 “미국 대선 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과 함께 본격적인 재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무상원조 재원을 토대로 추진되는 재건 사업은 해당공여국의 건설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미국 및 유럽연합기업이 선점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외교적으로 기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공적 지원 역시 저조

하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전쟁수행에 필요한 무기 등을 지원하고 있는 지원국(기관)은 총 42개국(기관)이다. 미국과 EU 중심으로 대규모의 지원이 이뤄졌고, 우리나라는 22위로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지원규모가 적다.

피해복구 등을 위한 재정적, 인도주의적 지원 역시 EU(기관)와 미국, 일본 등이 앞섰고, 우리나라는 14위에 불과했다.

다만 정부도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양국 정부 혹은 제3국 정부와 협의 및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지원 중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시비서가 차량 제어... 높은 편의성·민첩한 주행 '매력적'



볼보 S90

볼보 AI 플랫폼 '아리' 탑재
뛰어난 음성인식 기능 갖춰
초반반응, 가속 등 승차감 탁월



볼보 S90 외관.



볼보 S90 실내.

볼보자동차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소비자들의 심리를 완벽하게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브랜드다.

오랜기간 볼보자동차의 모습을 보면서 이같은 생각을 많이했다. 특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완전변경 모델을 내놓은것과 달리 차량의 질적 성장을 통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식지 않은 인기를 이어갈 수 있는 비결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볼보코리아는 지난 2019년 처음 국내 판매량 '1만대 클럽'에 가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이틀을 올리고 있다.

이같은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뛰어난 승차감과 정숙성, 여기에 최신 기술까

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볼보 플래그십 세단 S90 모델의 시승을 진행했다.

차량 외관은 클래식 볼보의 과거부터 이어진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을 담아내면서 독창적인 디자인 언어를 바탕으로 더해 더욱 매력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볼보 특유의 명료한 프론트 그릴과 '토르의 망치'로 명명된 독특한 라이팅 시그니처, 그리고 크롬 가니시를 가로로 길게 적용해 여유로운 세단의 감성을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표현했다.

내부는 시트의 경우 전동식 럼버 서포트와 쿠션 익스텐션, 전동식 사이드 서포트 및 마사지, 통풍 기능을 갖춰 뛰

어난 착좌감을 제공한다. 스웨덴 장인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완성한 오레포스 천연 크리스탈 기어노브도 적용돼 고급스럽다.

차량에 탑승해 시동을 걸면 볼보의 인공지능(AI) 플랫폼 '아리'를 만날 수 있다. 애플에 시리가 있다면 볼보 차량에는 AI버서 아리가 있다.

아리는 뛰어난 음성 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다. 볼보코리아와 티맵모빌리티가 지난해 2.0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다. 이는 2021년 한국에서 티맵 내비게이션, 사용자 음성인식 AI 플랫폼, 음악 플랫폼을 합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덕분에 과거 경로나 날씨 등을 검색했던 것과 달리 빠르게 대응했다. 볼보 코리아 관계자는 "과거 5초정도 딜레이가 발생했지만 신규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서 1초 미만으로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주행시 길이나 날씨, 뉴스 등을 묻는 질문에 곧바로 답해줬다. 운전자가 별도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설정해야하는 불편함이 줄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스마트폰과 차량을 연동한 상태에서 차량의 순정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경우

스마트폰 문자, 카톡 알림이 뜨면 화면이 전환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행 성능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S90 B6 파워 유닛은 최고 출력 300마력과 42.8kg.m의 토크를 내는 2.0L 가솔린 터보 엔진과 10kW(약 14마력, 4.1kg.m) 출력의 조합을 갖췄다. 제원상 성능은 뛰어난 수준이라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매우 민첩하다. 초반 반응과 고속구간에서의 추월가속은 부족함이 없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포스코, 임단협 난항...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

중노위 2차 조정회의 협상 결렬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포스코가 또다시 파업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노사간 극적인 합의로 파업 위기에서 벗어난 포스코가 올해도 임금 협상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철강 불황과 수익성 악화로 철강업계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 파업 리스크까지 덮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창사 56년 만에 첫 파업 위기에 놓였다. 포스코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중노위 역시 노사간 이견이 크다고 보고 최근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노조

는 기본임금 8.3% 인상과 조합원만을 위한 혜택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를 통한 조정이 중단되면서 노조는 단체행동 돌입에 나설 방침이다. 노조는 당장 오는 25일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할 방침이다.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기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다.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포스코 창립 이후 첫 파업에 직면하게 된다. 철강업황 부진에 더해 최근 제철소 내부의 화재 사고와 노조의 파업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포스코를 둘러싼 위기감은 확산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임금협상 외에도 공장 셧다운에 따른 노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는 최근 사측의 경북 포항 2공장 폐쇄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

면서 지난 20일 본사 상경 집회에 나섰다. 사측은 전방 산업인 국내 건설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중국산저가 공세까지 이어지자 결국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 감축에 나선다는 입장으로서 노조와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수익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감산 노력에도 철강업계 전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불황의 터널의 끝을 알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사들이 그동안 생산량을 감소하며 글로벌 시장 악화에 대응했지만 전기료까지 오르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노사간 임단협 갈등까지 확산되면서 경영 정상화는 더욱 묘연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SK온, 국산 생산 수산화리튬 1.5만t 확보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LTA 체결

SK온이 국내에서 생산한 수산화리튬을 확보한다. 배터리 핵심 원소재인 수산화리튬의 수급처를 다변화함에 따라 구매 원가 등 원소재 조달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SK온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과 수산화리튬 장기공급계약(LTA·Long Term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SK온은 이번 계약을 통해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고순도 수산화리튬을 내년부터 3년간 최대 1만 5000톤 공급받는다. 향후 3년 연장도 가능하다. 수산화리튬은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재의 주요 소재다.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지난 2021년 포스코홀딩스와 호주광산업체인 필바라미네랄스가 각각 82%, 18%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수산화리튬 생산



(왼쪽부터) 이경섭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대표, 박종진 SK온 전략구매담당 부사장이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리튬 공급 계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온

합작법인이다. 필바라미네랄스의 호주산 리튬정광을 조달해 전남 광양 공장에서 수산화리튬을 추출한다.

SK온은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수산화리튬 수급처를 확장한 만큼 향후 원소재 구매 협상력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화리튬 조달 시기를 단축시켜 물류 및 재고 비용을 절감하고, 수요 등 외부 환경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HD현대1%나눔재단, 아너상 대상에 '푸르메재단' 선정

"20년간 장애인들의 삶 지원"

HD현대1%나눔재단이 제2회 HD현대아너상 대상에 '푸르메재단'을 선정했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제2회 HD현대아너상 대상 수상자로 장애인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푸르메재단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HD현대아너상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 영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HD현대1%나눔재단이 지난해 제정한 상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1억

5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푸르메재단은 2005년 설립 이래 15개 산하기관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재활 의료사업, 장애 가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2016년에는 국내 최초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인 '푸르메재단 벅스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해 국내 어린이 의료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했다. 2020년에는 발달장애 청년 일터인 '푸르메소셜팜'을 설립해 발달장애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지난 20년간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푸르메재단은 상금 전액을 장애인 사업 개척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재단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최우수상 단체부문에는 미혼모 지원·상담 단체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개인 부문 및 1%나눔상 수상자로는 30년간 소외계층을 위해 헌 구두, 신발 등의 수선과 이발 봉사 등을 해온 김병록씨가 이름을 올렸다. /양성운 기자

이스타항공, 누적 탑승객 600만명 돌파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항공기 3대로 국내선 운항을 재개한 이후 빠르게 정상화에 다가서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누적 탑승객이 지난 22일 기준 6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 최단기간인 20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이 6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9월 500만 명 돌파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는 순조로운 항공기 도입과 취항 노

선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이스타항공은 운항 재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12대의 기체를 도입해, 현재 15대의 항공기로 국내선 3개 노선, 국제선 20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12월에는 추가로 국제선 4개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또 이스타항공은 보잉의 최신 기종, B737-8의 12대 추가 도입 계약을 완료해, 2026년까지 항공기를 27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OTT 공세에 흔들린 IPTV... 통신3사, AI로 재도약 모색

AI 맞춤형 서비스로 새 국면

KT, 콘텐츠 분석·추천 서비스 강화
SKB, 모션인식 등 새로운 경험 제시
LG헬로비전, 초개인화 서비스 제공

최근 몇 년간 인터넷(IP)TV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통신3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으로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통신3사 측은 AI 기술을 전면 도입하고,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사용자 경험 강화를 내세워 시장 파이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때 통신사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IPTV 사업은 최근 몇 년간 OTT의 성장과 코드커팅 현상으로 성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코드커팅은 소비자가 기존 유료방송 서비스를 해지하고 OTT 서비스를 선택하는 현상으로, '케이블 선(cord)을 자른다(cutting)'는 데서 유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유료방송 이용자의 37%가 OTT 서비스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으며, 글로벌 OTT 시장은 2024년 약 2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반면 IPTV 시장은 성장세가 둔화되며 통신3사의 매출 증가율이 1% 미만으로 둔화된 상태다.



김훈배 KT 미디어 플랫폼 사업본부 전무가 5일 서울 중구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열린 세계 최초 8K AI IPTV '지니 TV 셋톱박스 4' 출시 기자회견에서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과거 통신3사의 IPTV 사업은 2017년 처음 손익분기점을 넘긴 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통신사들의 주요 수익 원으로 자리 잡았고, 4년 전에는 성장률이 10%에 육박했다. 그러나 성장률은 1%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이며, 올해 2분기 실적에서도 이러한 둔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분기 IPTV 매출이 전년 대비 0.5% 증가한 4770억 원을 기록했으며, KT는 522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0.9% 증가했지만, LG유플러스는 3349억원으로 동기 대비 0.6% 감소했다.

◆통신3사 IPTV, 일제히 AI 적용... 차별화 전략은?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통신3사는 AI 기술을 도입하며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UX)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내세워 회복에 나서고 있다.

KT는 IPTV 업계 최초로 AI 기반 콘텐츠 분석 및 콘텐츠 생성 솔루션 '매직 플랫폼'을 출시했다. 지난 5일에 출시한 '지니 TV 셋톱박스 4'는 시청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해 사용자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콘텐츠를 추천한다. 특히, 'AI 글로벌 기 기능'을 통해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인물이나 장면만 빠르게 찾아볼 수도 있다. 긴급 재난 방송 시 AI 휴먼이 실시간으로 수어 통역을 제공한다. KT 관계자는 "특히 AI 수어 기능은 청각장애인 등 정보 소외 계층에게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IPTV 셋톱박스에 8K UHD 칩셋을 탑재해 이용자에게 생생한 콘텐츠를 전달한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생성형 AI '에이닷'을 Btv에 적용해 대화형 콘텐츠 탐색 서비스를 선보였다. 'AI 대화형 탐색 서비스'는 단순 검색을 넘어 추천 콘텐츠와 그 이유까지 제시한

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해리포터와 비슷한 영화를 추천해줘"라고 요청하면, AI가 비슷한 영화뿐만 아니라 추천 이유까지 제공한다. 또, AI 셋톱박스 'AI 4 Vision'을 출시해 업계 최초로 4K를 지원하는 13M 픽셀 카메라를 탑재하는 등 사용자 경험 강화에 나섰다. 이 셋톱박스는 AI 모션 인식 기능을 통해 홈 트레이닝과 모션 게임 등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LG헬로비전도 LG유플러스의 AI 기반 에이전트 '익시(ixi)'를 도입해 초개인화된 'U+tv'를 선보였다. AI 큐레이션, 실시간 자막 위치 조정, AI 음성챗봇 등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기능들을 도입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24시간 음성 기반 고객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사용자가 IPTV 사용 중 겪는 불편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찬승 LG유플러스 유니버스 그룹장(상무)은 "미디어 에이전트가 당장의 수익화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AI로 당장 IPTV가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시청 환경이 개선되면 코드커팅 현상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활용 못했던 데이터, AI로 새 시대 연다”

엔비디아, 2025년 AI 혁신 전망 데이터 활용·소형 언어 모델로 진화 생성형 AI·LLM, 산업별 맞춤형 혁신

엔비디아(NVIDIA) AI 전문가들은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지능형 매장, 새로운 로봇, 의료, 제조 등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것이라 예측했다.

엔비디아가 23일(현지시간) 2025년 AI가 가져올 혁신적인 발전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전망은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이 핵심을 이룬다. 산업계는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했으나 대부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데이터의 양은 120ZB(제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 세계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알의 120배가 넘는 양이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대중 공개 이



엔비디아가 23일(현지시간) 2025년 전망을 내놓았다. /엔비디아

후 AI의 급격한 발전과 거대언어모델(LLM)이 방대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되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엔비디아 관계자는 "2025년이 다가오면서 의료, 통신, 엔터테인먼트, 에너지, 로봇틱스, 자동차, 소매업과 같은 산업들은 이러한 모델을 사용해 자사의 독점 데이터와 결합하고, 추론할 수 있

는 AI를 개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옛지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거의 즉각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AI가 가까운 병원, 공장, 고객 서비스 센터, 자동차, 모바일 기기에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로봇틱스와 에너지 분야다. AI는 물리적 세계에서도 점차 역할을 확대하며 로봇 시스템과 산업용 기기의 비용을 대폭 낮출 것으로 보인다. 로봇의 경제성 향상은 산업 전반에 걸쳐 로봇 보급을 가속화할 것이다. 특히, 소형 언어 모델(sLM)의 도입은 옛 컴퓨터에서 AI의 성능을 향상시켜, 자동차와 첨단 로봇틱스 등의 다양한 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산업의 AI는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고, 전력망 최적화 및 청정에너지 채택을 가속화할 것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익시오’ 출시 10일 만에 다운로드 10만건

LGU+, 일평균 5000여건 누적

LG유플러스는 자사 인공지능(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ixi-O)'가 출시 열흘 만에 다운로드 10만건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7일 출시된 '익시오'는 ▲보이는 전화 ▲전화 대신 받기 ▲실시간 보이스피싱 감지 ▲통화 녹음·요약 등 기능을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다. 아이폰14 이상 단말기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 고객이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익시오는 출시 10일 만인 지난 16일 기준으로 다운로드 건수 10만건을 넘었다. 일평균 5000여건의 다운로드가 누적되고 있어 올해 안에 30만 다운로드를 달성할 전망이다.

익시오는 출시 첫날 앱스토어 모든 앱 부문 차트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

했다. 익시오를 주제로 제작한 유튜브 광고 영상도 공개 15일만에 누적 조회 수 200만회를 기록했다.

익시오 이용 고객 사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이폰 통화 녹음·요약으로 나타났다. 익시오 이용 고객 10명 중 3명은 음성 통화 내용을 AI가 즉시 텍스트로 변환해 보여주는 '보이는 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익시오는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 피싱 의심 전화로 판단할 경우 고객에게 알람을 보내는 '보이스 피싱 감지' 기능도 탑재했다. 익시오는 출시 2주 동안 6000여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감지했다.

LG유플러스는 더 많은 고객이 익시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KT, 테라급 전송망 시범 적용 성공

차세대 통신 속도 2배 향상

KT가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서울과 부산, 천안을 연결하는 백본망에 테라급 속도의 전송망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백본 네트워크는 모든 통신망의 기본 인프라로 통신 서비스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KT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발전과 글로벌 콘텐츠 수요 증가에 대비해 백본 네트워크

성능을 강화해 왔다.

KT는 테라급 전송망으로 서울과 부산 간 장거리 구간(530km)에서 1.2테라비피에스(Tbps), 서울과 천안 사이의 중거리 구간(110km)에서는 1.6Tbps 속도로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송수신되는 것을 확인했다.

KT는 이번 실증을 위해 '코히어런트(Coherent)' 기술, 가변 파장 전송 방식 등 대용량 전송을 돕는 기술을 고도화해 백본망에 적용했다.

/이혜민 기자

KT는 테라급 전송이 도입되면 수도권 데이터센터 간 데이터 전송 속도는 기존 대비 약 2.6배, 전국적인 백본 네트워크 속도의 경우 약 2배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KT는 내년 상반기 중에 테라급 중장거리 전송망을 적용한다.

KT는 백본 네트워크 성능 향상이 전체 통신망 유연성을 높여 다양한 고객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한다며 클라우드와 같이 큰 대역폭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경쟁사보다 더 빠르고 높은 품질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엘솔루, 캄보디아 IDRI와 AI 공동연구 착수

크메르어 음성인식·기계번역 개발

인공지능(AI) 기술 기업 엘솔루(구 시스트란 인터내셔널)가 지난 13일 캄보디아 디지털 기술 연구기관인 CADT 산하 IDRI와 크메르어 AI 기술 혁신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IDRI는 캄보디아의 최초의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 기관으로, 국가 산업과 정부 부처에 다양한 AI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6월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크메르어 음성인식 및 기계번역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엘솔루의 음성인식 시스템 AI Transcribe 과 기계번역 시스템 ezNTS를 IDRI의 AI 기술과 결합해, 세계 최고 수준의 크메르어 AI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와 글로벌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AI 기술과 제공할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바르셀로나 모바일 월드 콘그레스 2025

MOBILE WORLD CONGRES BARCELONA 2025

세계 최대의 모바일 산업 박람회
최신 모바일 기술, 혁신 및 산업 동향, 5G, 인공지능(AI),
IoT, 디지털 헬스케어, 최신 제품 전시 및 발표, 글로벌 네트워크

개최 장소 : 스페인 바르셀로나
[Spain Barcelona Fira Gran Via]

개최 일자 : 2025년 3월 3일 (월) ~ 3월 6일 (목)



국제 방위 전시회 및 컨퍼런스 2025

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 2025

중동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
방위 산업 & 정부 & 군대 및 군인 최신 방위 기술 및 장비,
글로벌 네트워크, 기술 발표 및 세미나

개최 장소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Abu Dhabi National Exhibition Centre (ADNEC)]

개최 일자 : 2025년 2월 17일 (월) ~ 2월 21일 (금)



프랑스 파리 항공 에어쇼 2025

INTERNATIONAL PARIS AIR SHOW 2025

세계 최대 항공우주산업 전시회 '파리에어쇼 2025'
항공기 제조업체 & 방위 산업 & 우주 산업 & 부품 및 장비
비즈니스 및 일반 항공기, 연구 및 개발

개최 장소 : 프랑스 르부르제
[Parc des Expositions du Bourget]

개최 일자 : 2025년 6월 16일 (월) ~ 6월 22일 (일)

www.snmiles.com

MICE, 일반 여행, 박람회 및 전시회 참관

비즈니스 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에스앤마일즈**



QR코드 스캔

카카오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박스권’ 갇힌 국내증시 속... 빠르게 우상향 하는 엔터株

KRX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지수 지난 8월 최저치比 약 10.70% 올라 YG·JYP·하이브, 두 자릿수 오름세 트럼프 관세정책서 ‘무풍지대’ 주요 아티스트 복귀에 실적 기대감

진한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주식 이민’이 확산되는 와중에도 국내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며 이목을 끌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주 초부터 반등을 시작해 2500선을 탈환했지만 지난 9월 4일 이후로 2600선을 뚫지 못하는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반면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S&P 500 지수는 지난주 약 1.3% 상승하며 올해 상승률만 24%를 넘어섰고,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4만4296.51)를 경신했다. 이에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으로 빠르게 투자자금을 옮기는 모양새다.



‘아파트’로 영미권 차트를 강타한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22일 오후 일본 교세라 돔 오사카에서 열린 ‘2024 마마 어워즈(MAMA AWARDS)’에서 ‘글로벌 센세이션’을 받았다. /CJ ENM

그럼에도 엔터테인먼트 섹터는 지지 부진한 국내 증시 상황과 다르게 지난 8월 이후 저점을 찍은 뒤 빠르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털·엔터테인먼트·게임 종목 등을 구성 종목으로 채택한 ‘KRX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지수’는

지난 8월 5일 1539.68로 52주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이번 달 22일에는 1704.45를 기록하며 약 10.7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와이즈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3만3500원에서 4만8900원으로 약 45.97%, JYP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5만900원에서 6만6100원으로 약

29.86%를 기록했으며, 하이브의 주가는 17만100원에서 21만4000원으로 약 25.81%로 모두 두 자릿수의 큰 오름세를 보였다. 주가 상승으로 국내 엔터 4사(JYP엔터테인먼트·와이즈엔터테인먼트·에스엠·하이브)의 시가총액도 지난 22일 기준 총 14조500억원으로 지난 달 말(11조8320억원)보다 18.7%(2조2180억원) 증가했다.

이런 엔터테인먼트 섹터의 상승세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호재가 연달아 일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엔터주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에 도운 호재로는 ‘국내의 관심’과 ‘해외의 무관심’이 공존한다.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지수 종목으로 JYP엔터테인먼트와 에스엠을 선정했고 이는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이끌었다. 아울러 엔터주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강화 정책에서도 ‘무풍지대’에 있다는 평을 받는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서비스업’은 규제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용찬 iM중

권 애널리스트는 “대형 수출주가 부진한 상황에서 미국발 관세 부과와 연관성이 낮은 엔터·미디어, 게임 등 무형 상품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주요 아티스트 복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저가 매수세와 맞물린 점도 엔터주에 호재로 작용했다.

증권가는 내년에는 BTS, 블랙핑크 등 인기 그룹의 완전체 컴백과 저연차 그룹의 IP(지적재산) 수익화 시점에 따라 음반 판매량 성장 등을 배경삼아 엔터주 주가가 추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엔터 업종 특성인 ‘인적 리스크’는 늘 예상하기 힘든 변수다. 대표적으로 하이브는 아직 민회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남아 있다. 이남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하이브에 대해 “어도어 이슈, 게임 퍼블리싱 사업, 위버스 구독 모델 등이 내재된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고배당주·AI 실적개선 등에 기대감 ‘쑥’

metro 관심종목 SK텔레콤

배당 수익률 6.25%... 外人 관심도 늘어 2026년까지 ROE 10% 이상 달성 AI 매출 비중 35%로 높이는 등 목표

증권업계에서는 높은 배당 수익률에다가 인공지능(AI) 사업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SK텔레콤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SK텔레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900원(1.60%) 오른 5만7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고배당주인 SK텔레콤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 SK텔레콤의 배당 수익률은 6.25%에 달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늘고 있다. 21일 기준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율은 42.39%를 기록했다. 통상 연말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을 노리고 통신주 같은 고배당 종목들 위주로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 T타워. /SKT

답는데 다음 달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통신주가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져 점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지난달 24일 공격적인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을 달성하고 연결 기준 조정 당기순이익 50% 이상을 주주환원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SK텔레콤은 오는 2030년까지 총 매출 30조원을 달성하고 이를 위해 AI 매출 비중을 35%로 높이는 ‘AI 비전 2030’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의 내년도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G 보급률이 높아져 무선사업 매출 성장은 더디겠지만 휴대폰교체수요가 현저히 줄어 마케팅비용이 절감된 데다 설비투자(CAPEX) 감소로 감가상각비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익 성장과 주주환원 확대로 주가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관계로 배당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더없이 매력적인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의 AI 사업 성장 가능성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KB증권은 SK텔레콤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7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 GPUaaS, 옛지 AI로 구성된 AI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전략 구상인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 구축 의지를 확인한 데 이어, 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를 위해 SK브로드밴드의 잔여 지분을 인수했다”며 “현재 구축 중인 데이터센터가 가동하면서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미래에셋증권,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확대

퇴직연금서 개인연금 고객에도 제공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퇴직연금 고객에게만 제공되던 ‘맞춤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개인연금까지 확대한다.

미래에셋증권은 ‘개인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2022년 9월 첫 출시된 이후, 올해 10월말 기준 가입계좌 2만좌 이상, 가입자산 1조7000억원 규모의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로 성장해왔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40~50대 고객들의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가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월 중순 기준 약 70% (가입계좌 수 약 1만 6000좌, 가입금액 약 1조2400억원)를 차지하며, 연금에 지속적으로 신경쓰기 힘든 직

장인과, 은퇴를 앞둔 세대들의 가입 비중이 높았다.

이번에 미래에셋증권이 출시한 개인연금 로보어드바이저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와 동일하게 ‘내 계좌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됐다. 고객의 투자 성향, 가입 시점, 현재의 자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투자 솔루션을 제안하고, 개별 투자 상품에 부과된 보수 및 수수료 외에 로보어드바이저 이용에 따른 별도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미래에셋 증권 관계자는 “개인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가입과 이용도 간편하다”며 “고객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앱(M-STOCK)을 통해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복잡한 절차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허정윤 기자

테라뷰, 기술성 평가서 ‘A, A’ 등급 획득

코스닥 상장 추진 본격화

테라헤르츠 전문기업 테라뷰는 기술성 평가에서 긍정적인 등급을 획득했으며, 본격적으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술성 평가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의 첫 관문으로,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이크레디블과 한국평가데이터에서 A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테라뷰는 ‘테라헤르츠’ 핵심 기술의 성장성, 경쟁우위, 연구개발 및 경영역량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각 기관에서 A, A 등급을 획득했다.

2001년에 설립된 테라뷰는 테라헤르츠 전자기파 발생 및 응용 검사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두고 있다. 유럽 기업이

한국에서 상장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테라뷰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테라헤르츠는 물질 분석에 유용한 전자기파로, 높은 투과성과 분자와의 반응성이 뛰어나 미세한 타깃을 감지하고 검사하는 데 적합하다. 이 기술은 특히 반도체 패키지 및 배터리 전극 코팅 검사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회사는 엔비디아, 인텔, 포드와 같은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국내 유수의 반도체와 이차전지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며 테라헤르츠와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돈 아논 테라뷰 대표는 “상장을 통해 한국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금감원, 가상자산 금융사기 피해예방 박차

IOSCO 주관 ‘세계투자자주간 캠페인’

금융감독원이 ‘세계투자자주간’을 맞아 가상자산 관련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주제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주관으로 시행되는 ‘세계투자자주간 캠페인’을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24일 밝혔다.

세계투자자주간 기간에는 각 회원국이 매년 한 주를 정해 투자자보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118개국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은 2020년부터 참여했다.

금감원은 이번 세계투자자주간 캠페인 주제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선정했다. 총 7개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세계투자자주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금감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피해예방’ 유튜브 영상을 제공한다.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가상자산조사국 직원과 학계 전문가가 출연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피해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방영한다.

또한 금융사기 취약성 자가진단과 가상자산 키즈 등을 통해 투자자가 자신의 금융사기 취약성을 자가진단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상자산 기초상식을 가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허정윤 기자

답이 아닌 길을 찾아서... 전문상담사 학습 '공감형 AI' 개발

도전! 스타트업

정보연 풍대표

사회에 만연한 불안·긴장 해소 목표
중기부 '2024 창업기술 R&D' 선정
"2030년 웰니스기업 최초 상장 계획"

6개월 가량 밖을 나가지 않은 은둔고립 청년 A씨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A씨는 컴퓨터 키보드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써내려간다. "타인과 많이 비교를 하게 돼요. 그렇다보니 나 자신을 학대하고 또 자존감이 자주 낮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엔 A씨가 쓴 내용을 보고 컴퓨터가 다시 묻는다. "그렇게 느끼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어떤 순간에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나요?"

A씨와 컴퓨터의 대화는 계속 이어진다. 챗GPT는 대화를 통해 답을 찾아준다. 하지만 A씨와 대화하는 이 컴퓨터는 답을 찾는게 아니다. 길을 찾는다. 그러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물으며 계속 대화를 시도한다. 이 컴퓨터가 바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정공감AI'다.

전문상담사의 의사결정을 학습한 '공감형 AI 상담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다.

사회치유기업(주)풍(Pong)과 정보연



정보연 풍(Pong) 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대표다.

"회사명 '풍'은 '포용'의 준말이다. '삶속에 풍당 빠진다'는 뜻도 담겨 있다. 우리 사회는 불안의 힘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는 소진할 수밖에 없다. 속도를 늦춰야 한다. 긴장도 완화해야 한다. 이제 삶을 향유해야 할 때다. 이를 돕기 위해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정 대표는 2022년 12월 풍을 설립했다. 그동안 비영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나이 오십을 전후해 처음으로 영리법인에 뛰어들었다. 목적의 50%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솔직히 말한다.

하지만 정말 큰 목표는 따로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안, 긴장, 속도를 줄여보자는 게 대의명분이다. 언젠가는 꼭 도전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시작했다.

정 대표와 풍이 개발하고 있는 AI 상담 솔루션 '감정공감AI'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 창업기술 R&D'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상담을 할 땐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외로움, 수치심 등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AI를 만들자고 마음먹었다. 은둔고립 청년 등은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AI와 같은

매개체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AI는 상담을 받는 이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상담은 사람이 하게 된다. 인간과 AI의 협동상담이 되는 셈이다. AI는 상담을 위한 협력자다. 이렇게하면 상담 비용과 시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인공감성지능융합연구센터와 개발하고 있는 이 솔루션은 현재 특허 출원도 진행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청진기, X-레이, CT, MRI 등 다양한 진단기기를 사용하듯 AI가 사람과 대화를 통해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정 대표가 풍을 설립한 후 시작한 것은 '마인드#캠핑'이다. 리빙케어, 수용전념치료, 루덴스(라틴어로 '놀다'라는 뜻), 명상의 4가지 요소를 접목한 기본 6주 과정의 자기회복 프로그램이다.

풍은 그동안 은둔고립 청년, 18세 어린 자립준비 청년, 청년 공무원, 장애인, 청년 암환자, 1인 가구 청년,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정 대표가 이처럼 '마음'에 자꾸 마음이 쓰이는 것은 개인의 경험 때문이다.

그는 40대 초반 대장암 2기 진단을 받고 6개월만에 간까지 암이 전이돼 생사

를 오갔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5년 생존 확률이 6%라는 진단을 받았다. 서울생활을 접어야 했다. 수술을 받았지만 항암·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산속으로 갔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 약초를 이용하고 땀을 뜨고 명상을 했다. 암 진단을 받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컸다. 생존도 해야 했다. 불안과 긴장을 푸는 것이 우선이었다. 명상을 많이 할 땐 하루 10시간도 했다. 산에서 3년을 살다 내려와 이후엔 경기도 양평에 정착했다. 그러다 서울을 떠난지 12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그 사이 그의 몸에 있었던 암도 사라졌다.

정 대표는 청년 시절엔 시민회, KYC, 구의원 등으로 활동했다. 서울시에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정책을 담당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장을 맡았다.

"웰니스기업 최초로 2030년께 상장을 할 계획이다. 현재 시드투자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참 전투적으로 살았다. 그렇다고 행복하진 않았다. 열심히 살았지만 늘 불안했다. 긴장하며 살았다. 그러다 암도 걸렸다. 이젠 진짜 자신의 삶을 향유하는 세상이 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샘, 전 제품 생애주기 관리 강화 홈 리빙 시장 친환경 트렌드 주도

인류에서 환경까지 사회공헌 확장
"엄격한 관리로 일류 기업 발돋움"

한샘이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공헌의 범위를 기존의 '인류를 위한 주거환경'에서 '환경'까지 넓혀 장기적인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환경적 책임을 다하면서다.

한샘은 제품 생산 전 단계에 걸친 생애주기 관리를 통해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며 대한민국 홈 리빙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24일 한샘에 따르면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 폐기하는 모든 단계에서 환경 관리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특히 업계 유일 공인시험 기관인 한샘연구소를 통해 제품의 내구성을 향상시켜 생애주기를 길게 하고 결과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있다.

우선 핵심 원자재인 목재, 가죽 등에 대해 조달 단계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친환경 원자재 조달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원자재 공급이 가능한 협력사를 선정하고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부엌, 수납, 식탁 제품은 자재 전용규격을 적용해 수율을 극대화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했다.



한샘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한샘

제조 과정에서도 각 제조 현장 및 건물 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집계해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 소모량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장, 마감재도 제품 수명을 연장해 환경적 부담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소파와 패밀리저상침대의 하부 마감재를 기존의 부직포에서 패브릭으로 대체했다. 부직포는 시간이 지나면 닳거나 삭아 수명이 짧아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매트리스에는 반복 하중에 강한 블랙T 스프링이 포함되도록 설계를 변경했다.

침구, 속통류 제품 포장재도 PE나 비닐에서 면 100%, 또는 리뉴어블 납사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트리스 배송시 별도의 포장용

파우치를 사용해 2차 포장을 진행하는데, 제품 배송 후 포장 파우치를 회수해 재사용하고 있다.

한샘은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제품 생애주기에 따른 제품의 환경 영향 관리'를 9가지 중대이슈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특히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각 부서별로 전 단계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한샘 관계자는 "한샘은 지난 54년간 국내 홈 인테리어 시장을 선도해오면서 단계적인 이익보다 중장기적인 성장에 집중해 왔다"며 "글로벌 기준에 맞춘 엄격한 수준의 관리를 통해 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기보, '중소벤처 ONE 플랫폼' 구축사업 착수

김종호 이사장 "DX시대 신속 대응"

기술보증기금(기보)은 디지털·데이터 기반의 업무혁신과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의 일환으로 차세대정보시스템인 '중소벤처 ONE 플랫폼' 구축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08년 구축된 노후화된 현행 IT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고성능·고효율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시스템 분석과 설계를 시작으로 향후 17개월 동안 진행해 2026년 2월 오픈을 목표로 한다.

기보는 중소기업 ONE 플랫폼 구축

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고도화 ▲노후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 ▲사용자 중심의 고효율 업무시스템 구축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최적의 IT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IT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고도화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보는 내·외부 역량을 집중해 차세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 데이터 기반의 업무혁신과 디지털 경쟁력 확보로 디지털 대전환(DX)의 시대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노란우산 가입자 70% "소득공제 늘려야"

상향 희망규모엔 '900만 이상' 최다

노란우산 가입자 10명 중 7명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발표한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9.9%는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야 한다'로 답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31.5%였다.

이번 조사는 14~19일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22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상향시 희망규모로는 '900만원 이

상'이 39.8%로 가장 높았다. 현행법상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는 부금의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가 커지면 월 부금액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79.3%에 달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은 소득이 있을 때 노란우산 부금을 많이 적립할수록 폐업 등 위기 시에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세제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부금 적립액을 높여 국가 부담은 줄이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탄소발자국 검증’ 해외서도 통한다 수출기업, 비용·시간 대폭절감 기대

KOLAS·IAF, 상호인정협정 체결
해외 협력 네트워크로 효율성 강화
검증 국제화로 수출 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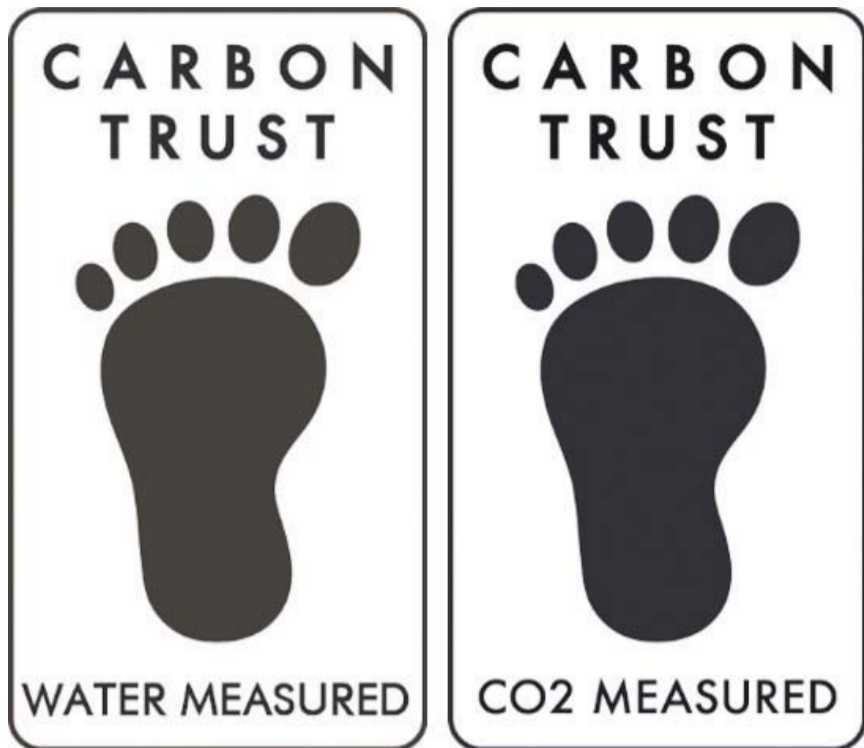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국내 인정기관의 ‘탄소발자국 검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전망이다. 수출기업들의 해외 인증 비용 등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한국인정기구(KOLAS)가 국제인정기구포럼(IAF)과 탄소발자국 검증을 포함한 온실가스 검증 분야에 대한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탄소발자국 검증’은 제품의 원료 채굴부터 제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업 스스로 산정하면, 제3자 공인검증기관이 검토해 검증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탄소배출 규제 일환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검증 의무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EU의 배터리규정, 에코디자인규정이 대표적인 예다.

KOLAS는 지난해 1월 탄소발자국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한 이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8개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공인했고, 각 기관의 국제적 신뢰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번 IAF와의 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카본 트러스트 물·탄소 발자국 인증 로고.

/뉴시스

이번 협정은 KOLAS가 공인한 탄소발자국 검증기관의 검증 능력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하며, 해외 공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검증서 상호인정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 수출기업은 해외 현지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OLAS 공인검증기관에는 폭 넓은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KTR, KTL, KTC 등 대형 시험기관이 포함된 만큼 향후 해외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이 기대된다.

IAF는 온실가스 검증과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 등의 분야 세계 최대 국

제기구로, 올해 8월 기준 100개국 86개 인정기구가 가입해 있으며, 각국 발행 검증서 등 상호 통용을 통한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MLA를 운영하고 있다.

진중욱 국표원장은 “이번 협정 체결로 KOLAS 공인검증기관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발행된 탄소발자국 검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한번의 시험, 인증, 검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재생원료 확대로 순환경제 전환 박차”

환경부, 순환경제 이니셔티브 출범
재활용 확대 위한 ‘민관 공동’ 노력
재생원료 활성화·기술지원 기반 구축

정부가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주요 기업 및 해외 산업협체 등과 손을 맞잡는다. 민간 부문의 코카콜라와 아모레퍼시픽, SK케미칼, LG화학, 올리브영 등을 비롯해 해외의 세계경제포럼, 앨런맥아더재단 등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국내외를 아우르는 민관 협력체계인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이니셔티브’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발족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이니셔티브(새로 마련한 계획)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계기로 추진된다.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 재활용까지 모든 주기를 망라하는 긴밀한 순환경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발족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위원장이 참석한다. 또 플라스틱 산업을 대표하는 14개 기업, 4개



국내의 한 커피 매장에 사용한 플라스틱 컵과 빨대가 놓여 있다.

/뉴시스

협회·단체 대표, 해외 산업협체의 3곳 관계자도 합류한다.

발족식에서 정부와 산업계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적인 노력과 의지를 담은 이행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선언문에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관리를 위해 ▲ 재생원료 사용 국가 목표 달성 노력 ▲ 재사용 등 플라스틱 감량행동 강화 ▲ 연구개발(R&D) 과제 발굴 ▲ 기반시설 구축 및 기술지원 ▲ 국제사회와 협력 창구 구축 등 정부 및 산업계의 공동

역할 등이 담겼다.

아울러, 앨런맥아더재단이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순환경제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이번 이니셔티브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연차별 재생원료 활성화 ▲재사용 및 되채우기 거점 확대 ▲소비자 인식 제고 등 기업의 창의적 해법을 활용한 순환경제 협력 사업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동향에 맞추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이니셔티브의 운영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 우수 사례 등을 국제기구 및 해외 산업협체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이행의 모범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기업의 혁신과 국제사회의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환경부가 순환경제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각양각색’ 캠페인, 韓PR대상서 최우수상

농식품부, 소통 중심 정책 홍보 주목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의 한국PR대상’ 정부 부문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24일 올 한 해에 걸쳐 진행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 캠페인 <농업은 스펙, 농촌은 리스펙, 우리는 각양각색>이 지난 22일 개최된 2024년 한국PR대상 시상식에서 정부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각양각색 캠페인’은 MZ세대에게 농업·농촌이 다양한 스펙을 쌓으며 각자 개성에 맞는 각양각색의 ‘각색’을 살 수 있는 삶터이자 일터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각색’이란 신을 뜻하는 갓(god)과 인생을 뜻하는 생(生)을 결합한 MZ세대 신조어로 하루하루 본인이 뜻한 바대로 열심히 살아내는 삶을 의미한다.

실제로 농업·농촌에서 창업에 성공한 청년 사업가들이 직접 출연해 본인들의 성공 과정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가 제작됐다. 또 청년세대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농업·농촌 스타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2024년 한국PR대상 시상식’에서 정부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식품부의 전현영 대변인(오른쪽)이 참석했다.

/농식품부

트업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해보는 콘텐츠가 만들어졌다. 아울러, 진로를 고민하는 실제 대학생들에게 한 달간 농업·농촌 스타트업에서 인턴십 기회를 부여(5개 업체에서 20명)해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이같이 체감도 높은 캠페인을 지원해 청년세대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 점이 호평을 받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코트라, 인도서 K-팝·김치 알리기 성공

한-인도 수교 50주년 ‘코인텍스’ 개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지난 21~23일 인도 뉴델리 야쇼부미전시장에서 첫 개최한 ‘2024 대한민국산업전시회(코인텍스)’가 참관객 1만4000명을 기록한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했다.

이번 코인텍스는 인도 최초로 한국 기업이 주최, 주관해 열렸으며 양국 기업 280개사, 약 600개 부스가 운영되는 등 인도 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으로 경기도 기업 114개사가 참여했고,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최신 기술 및 제품 시연으로 현지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는 양국 주요 경제인 500여명이 참석해 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 경제 공동 번영

의 길을 논의했다. 또 IR 챌린지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기업 MOU 협약, K-팝 콘서트 결승전과 김치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려 인도 현지에 한국을 알리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인도와 서남아 지역 바이어 3600개사가 참가기업 부스를 방문, 약 5000건 이상, 수출상당액 기준 총 4억 5000만달러 규모 수출상담이 진행됐다. 향후 수출 계약 추진시 1억4000만달러 이상 성과가 기대된다.

빈준화코트라서남아지역본부장은 “인도에서 처음 개최된 대한민국산업 전시회에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 지역의 핵심 바이어들을 대거 유치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며 “글로벌 사우스 핵심지역인 인도에서 우리 기업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어촌 미래 위한 대전환 논의

27일까지 제주도 ‘세계어촌대회’ 개최

해양수산부가 이달 24~27일 나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4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 행사에는 30개국 내외의 정부 및 어업인 대표, 국내외 전문가 등이 한데 모인다.

세계어촌대회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창설됐다. 기후변화, 인구감소, 재해 취약성 등 전 세계 어촌지역이 당면한 공통 현안 및 협력방안 등을 다루는 등 연례 국제 세미나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번 대회는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 대전환 시대와 어촌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5개의 공식 세션으로 나뉜다. 각 세션에서 국내외 어촌당국과 전문가들

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논의 내용은 ▲어촌·어항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섬·어촌의 스마트 전환 ▲어촌과 여성어업인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이다. 또 정부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2026 여수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섬을 보유한 참가국 간 협력 네트워크 행사, 전국어촌리더대회 등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그간 정부는 어촌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 어촌의 경제 기반과 정주 환경을 개선해 왔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GREEN *Sweet* WINTER

강원 다래의 상큼 달콤함을 담은 겨울의 한 잔



다래 레드 스위트
5.9



다래 그린 스노우
ICE ONLY 6.9



강원특별자치도

우리나라 토종 과수 다래 농가와 함께합니다.

전남도, 2030년까지 식품산업 규모 21兆로 성장시킨다

식품산업 육성 추진계획 마련
5개 분야별 목표·실행방안 담아
100억 매출기업, 40개사로 확대

전남도가 2030년까지 식품산업 규모를 21조 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식품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총사업비는 4조6893억 원이다.

기존 생산 위주에서 탈피,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축산, 수산, 수출, 연관사업,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5개 분야별 목표와 실행방안을 담았다.

농축산의 경우 쌀·양파·김치·돼지 4개 품목을 전략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남쌀 가공업 생산·유통플랫폼 32억 원 ▲양파와 김치 육성을 위한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 280억 원 ▲해남 K김치 클러스터 590억 원 ▲축사 현대화와 ICT 기반 구축 1800억



전남도가 2030년까지 식품산업 규모를 21조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식품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원 등 463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100억 원 이상 농식품 매출기업을 현재 34개에서 40개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1조3000억 원을 들여 무안과 함평에 인공지능 첨단농업 융복합지구 조성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남도장터 판촉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산 분야는 김·전복·넙치·조기 등

4개 품목을 전략식품으로 정해 ▲국립 김산업진흥원 건립 400억 원, 김양식어장 10% 확대 ▲전복 육성을 위한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확대 78억 원 ▲넙치 육성을 위한 AI 양식기술 보급 500억 원 ▲스마트조기 양식산업화 센터 160억 원 등 216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427억

원, 수출단지 조성 1137억 원, 마른김 물류시설 확충 600억 원, 전복 유통상자 규격 단일화 199억 원 지원 등을 통해 수산식품 100만 달러 수출기업을 현재 60개에서 2030년까지 85개로 늘릴 방침이다.

수출 분야에선 온라인 수출플랫폼 확대 139억 원, 해외 상설판매장 82억 원 지원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해외 주류 대형 식품산업 식품마켓 입점 기업도 현재 4개에서 16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연관사업 분야에선 앵커기업을 포함한 식품기업 10개를 유치하고 무안 K푸드 융복합 단지를 1661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도는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매년 열고, 전남연구원의 연구유역을 통해 육성 방안도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다음달 18일엔 서울에서 식품산업 앵커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전남도 농가 재해지원금 154억 지급

전남도가 벼 재배농가 중 지난 9월 집중 호우와 비열구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지원금 154억원을 지급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집중 호우로 벼 7409ha에서 쓰러짐 등의 피해가, 8~9월 폭염(고온)으로 9261ha(벼 재배면적 14만8000ha의 6.3%)에서 비열구 피해가 각각 발생했다.

이에 비열구 피해 9601농가에 농약대 91억 4000만 원(ha당 100만 원), 대파대 2억4000만 원(ha당 200만 원), 생계비 1억8000만 원(피해율 50% 이상) 등 총 95억6000만 원의 복구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여수시 신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여수밤바다가 한층 다채롭고 매력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여수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 '리듬 오브 더 나이트, 여수(Rhythm of the Night, YEOSU)'를 주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야간관광의 공간적 확대 및 다변화되고 차별화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것으로, 기존 여수밤바다에 소리와 빛, 감성적 체험 요소를 더한 '다감각적 야간관광 이미지 구축 사업'이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부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부산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한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며,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울진군 '직산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

울진군은 태풍 및 고파랑 등으로부터 연안침식을 방지하고 연안보호를 위해 2025년부터 '직산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경북 울진군 평해읍 직산리는 지속적으로 모래 유실이 발생하여 연안침식이 진행 중인 실정으로 '2023년 경상북도 연안침식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침식등급이 C등급(우려)에서 D등급(심각)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울진군은 연안 침식 현황 등을 장기간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하고 해양수산부에 직산지구 연안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간 노력의 결과로 총 사업비 93억원을 확보하여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김장철 맞아 '해남 절임배추' 인기

김장 소규모·간략해짐에 따라
편리한 절임배추 시장 '주목'
해남, 전국 배추 재배량 26% 차지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된 가운데 청정해남의 절임배추가 인기 상승가를 달리고 있다. 절임배추는 김장을 준비할 때 가장 번거롭고 까다로운 과정으로 꼽히는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과정 없이 바로 김치를 담을 수 있어 최근 김장 문화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김장의 규모가 소규모로 바뀌고 간략해짐에 따라 편리한 절임배추 시장으로 소비자들 몰리고 있다.

명품배추로 인정받는 해남배추를 이용해 만든 해남절임배추는 김장 시장의 절대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남군은 전국 배추 재배량의 26% 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 올해 4257ha 면적에서 배추를 재배하고 있다. 올해 생산량은 34만여톤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중 20% 가량이 관내 업체에서 절임 배추로 가공될 것으로 보인다. 해



해남군(명현관 군수)의 절임배추 현장점검 /해남군

남 절임배추는 지난해 관내 700여농가에서 248만여박스(20kg 기준)를 판매, 930여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해남절임배추의 인기는 원재료인 해남배추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해남절임배추는 70~90일 이상 충분히 키워 2.5kg 이상 결구가 잘된 배추만을 사용해 국산 천일염과 깨끗한 물로 위생적인 시설에서 만들어 3~4차례에 걸쳐 씻어 물기를 뺀 후 배대되므로 바로 김치를 담을 수 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서해안 철도망으로 지역균형발전 앞당겨야"

영광, 함평, 군산, 부안, 고창 지자체장 결의문 통해 충청·경기비 차별 우려

호남 서해안권(영광, 함평, 군산, 부안, 고창) 5개 지자체장이 "서해안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5개 지자체장은 서해안 철도 인프라 관련, 호남 서해안권이 충청·경기지역에 비해 일방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지난 2일 서해선(홍성~서화성),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3개 노선이 동시 개통하면서 충남·경기지역 철도망 구축의 선기원이 열렸다. 동해안 역시 울진·말포항-삼척간 철도가 개통될 예정이다. 반면, 전북과 전남 서해안은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비롯해, 조선업과

원자력, 해상풍력, 전기차, 드론 등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산업의 중추임에도 철도망 구축은 수십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5개 지자체장은 결의문을 통해 "서해안 철도는 물류비용을 줄여 국가 첨단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포화상태에 이른 서해안고속도로 통행량을 분산시켜 탄소배출 저감과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끌어 올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폭발하는 관광수요 대응 차원에서 철도망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호남 서해안권에는 현재 운영중인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향후 5년 내 새만금국제공항, 3개의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이 본격 운영될 예정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을 내륙까지 실어나르기 위해선 철도망이 필수적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경주시, 내년 본예산 2조 250억 편성

올해비 6.5%↑... 사상 최대 규모

경주시가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250억원의 내년도 본 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대비 1250억원(6.5%) 늘어난 규모다.시는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에도 불구하고, APEC 유치에 따른 국·도비 확보 등으로 사상 최대 예산 편성을 이뤄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고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를 추가 삭감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지방채 없는 건전 재정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함께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저출생 극복, 서민 경제 안정을 주요 예산 편성 방향으로 설정했다.

세부 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5348억원(26.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공공질서 및 안전·환경 2812억원(13.8%) ▲국토 및 지역개발 2311억원(11.4%) ▲농림해양수산 2267억원(11.2%) ▲문화·관광 2123억원(10.5%) ▲교통·물류 839억원(4.1%) 순으로 배정됐다.

APEC 정상회의 관련 예산은 국비 438억원, 도비 563억원을 포함해 1916억원 규모로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디어센터 건립 138억원 ▲HICO 리모델링 120억원 ▲엑스포 행사장 정비 104억원 ▲하천·도로 및 교통 정비 157억원 ▲사적지 정비 32억원 ▲제2동공원 조성 마무리 90억원 등이 포함됐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광주 '상무지구대로 경찰관' 신고출동 최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인당 한 달 평균 25.31건 출동

광주 지역 경찰관서 중 신고 출동이 가장 많은 곳은 서부서 상무지구대로 경찰관 1인당 한 달 평균 25.31건의 출동을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출동 신고가 가장 적은 북부서 석곡과 출소는 1인당 5.38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경찰서별 파출소·지구대 신고접수 현황'과 광주경찰청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개월간 광주 관내 파출소·지구대 신고출동 건수는 총 32만 7362건이다.

이는 한달 평균 2만5182건, 하루 평균 약 827건 수준이다. 광주 파출소·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전체 경찰관이 128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달 1인당 19.67건의 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신고출동이 가장 많은 곳은 서부서 상무지구대로 13개월간 2만7313건을 출동했다. 한달 평균 1인당 출동은 25.31건으로 이 광주에서 가장 많았다.

2위는 광산서 수완지구대(2만4686건)로 한달 평균 1인당 출동은 24.98건, 3위는 북부서 우산지구대(2만3422건·역전지구대 포함) 1인당 20.01건으로 조사됐다. /광주=양수영 기자

빙그레, 지배구조 개편 본격화... '제때' 지주회사 통합 가능성

내년 지주회사-사업회사 인적분할 김동환 사장, '제때' 지분 33% 보유 지주회사 합병시 경영권 승계 영향 부당 내부거래 의혹... 도덕성 변수

빙그레가 내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는 인적분할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지배구조 개편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내년 5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분할 후 지주회사는 신규사업투자, 자회사 관리 등 투자사업부문에, 사업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집중함으로써 각 사업부문별 사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될 '빙그레(가칭)'는 유가공 제품 등 음식료품의 생산 및 판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영 체제를 구축해 사업



빙그레 본사 사옥 전경 (원형사진) 김호연 빙그레 회장

/빙그레

전문성과 성장전략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업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분할 존속회사인 '빙그레홀딩스(가칭)'는 향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해 투자 및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며, 해외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등 그룹 내 계열사 간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등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 갈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체제 전환이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빙그레의 지분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36.75%, 재단법인 김구 재단이 2.03%, 재단법인 현대문고가 0.13%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빙그레 주식 1.99%를 보유한 3대 주주인 물류회사 '제때'의 지분 33.34%를 김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

이 보유하고 있다.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한 김 사장은 구매와 마케팅 부문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경영기획·마케팅본부장으로 회사의 주요 전략을 이끌어왔다. 그리고 지난 3월 사장으로 승진했다.

일각에서는 빙그레가 인적분할 후 '제때'와 지주회사를 통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제때'와 빙그레 지주회사가 합병할 경우 지분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빙그레가 3세 경영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회사를 둘러싼 논란과 오너리스크가 승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빙그레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빙그레가 '제때'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가 제기된 것이다. '제때'는 빙그레와 빙그레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 등과 거래를 통해 몸집을 키워왔다.

'제때'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9년 24.8%에서 2022년까지 32.4%로 꾸준히 확대됐다. 지난해 25.0%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

다. 이에 공정위는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 자회사를 통한 물류 계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장 개인의 도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동환 사장은 지난 6월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여전히 법적 분쟁중이다. 이러한 잡음들은 경영권 승계를 추진 중인 빙그레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빙그레 측은 "지배구조 개편으로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시장으로부터 적절한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0.25%(100만9440주)를 전량 소각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 분할과 승계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너리스크 및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백 "전 세계 명품 주얼리 만나보세요"

전시회 등 주얼리 상품 경쟁력 강화 연말 400억 규모 '하이 주얼리 페어'

최근 명품 주얼리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명품 주얼리는 패션 아이템으로서 활용성뿐만 아니라 자산으로서 소장가치도 높아 예술 작품으로서 희소성과 투자적 가치 모두를 찾는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로 올해 롯데백화점의 1~10월 명품 주얼리 매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신장했으며 연말 선물 시즌이 시작된 11월(1~22일)에 들어서서는 40% 이상 고신장하며 백화점 명품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롯데문화재단과 함께 세계적인 주얼리 컬렉터 '카즈미 아리카와'의 최대 규모 보석 전시회를



하이주얼리페어 키주얼 이미지 /롯데백화점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연말 주얼리 고객 수요를 잡기 위한 '하이 주얼리 페어' 등도 연다.

/최빛나 기자 vitna@

먼저 롯데백화점은 연말 주얼리 구매 고객들을 위한 '하이 주얼리 페어'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다. 에비뉴엘 잠실점 1층과 2층 본매장에서 오는 2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하이 주얼리 페어'는 카르띠에, 불가리, 반클리프아펠, 쇼메 등 총 14개의 해외 유명 하이 주얼리 브랜드가 참여해 각 브랜드의 시그니처 컬렉션부터 특별 제작된 한정판 주얼리까지 총 130여개, 약 400억원 상당의 다양한 주얼리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영국 하이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의 상징적인 타원형의 옐로우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세팅한 약 18억원 상당의 '프로미스 링'은 이번 페어에서 국내 단독으로 공개된다.

/신원선 기자

롯데백 '박달 대게' 한정 판매

롯데백화점이 오는 28일까지 3개 점(본점, 잠실점, 강남점)에서 영덕에서 산지 직송으로 받은 '박달 대게'를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박달대게는 박달나무처럼 속이 딱딱해서 불리게 된 이름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자망협회로부터 인증받을 수 있다.

첫째는 눈부터 등딱지 아래인 갑장이 10cm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는 수율이 90% 이상, 셋째는 10개의 다리 중 9개 이상 달려있어야 한다.

박달대게는 무게 1.2kg 기준 약 16만 8000원에 판매한다.

/최빛나 기자

호떡·붕어빵 등 겨울 길거리 간식 인기

이디야커피 '길거리 간식' 판매 급증

이디야커피가 지난 9월 선보인 겨울 '길거리 간식' 4종이 누적 판매량 70만 개를 돌파하며 겨울철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다.

'길거리 간식' 4종은 찬 바람 불면 떠오르는 겨울철 대표 간식 ▲꿀호떡 ▲콘치즈 계란빵 ▲팥 붕어빵 ▲슈크림 붕어빵으로 구성됐으며, 최근 급격한 기온 강하로 인해 따뜻한 간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관심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쫄깃한 찹쌀 반죽과 달콤한 호떡 소의 조화를 자랑하는 '꿀호떡'과 고

소하고 짭조름한 맛이 특징인 '콘치즈 계란빵'이 이달 1일부터 21일간 각각 베이커리 판매 순위 2위와 3위에 오르며 추억의 겨울 간식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중량을 키워 리뉴얼 출시한 '팥 붕어빵'과 '슈크림 붕어빵' 또한 겉은 바삭, 속은 쫄깃한 '겉바속촉'의 매력적인 식감과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으로 남녀노소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겨울 길거리 간식 메뉴는 전국 이디야커피 매장은 물론 배달 서비스, 이디야오더, 네이버 스마트 주문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홀케이크 예판

예약고객에 홀리데이 캔들 증정

스타벅스코리아가 25일부터 스타벅스 앱을 통해 크리스마스 홀케이크 예약판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다채로운 홀케이크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 홀케이크 예약 고객 대상으로 스타벅스 별 5개와 홀리데이 캔들을 증정하고, 매장에서 케이크 수령시 플레이트(2개), 테이블보(1개), 토퍼(2개)로 구성된 홀리데이 파티팩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먼저 25일부터 27일까지 예약이 가능한 '조선텔리노엘 트리 케이크'는 조선호텔 110년의 노하우를 담은 브랜드 조선텔리와 함께 스킨 럭셔리 콘셉트로 기획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케이크다.

서울 지역 9개(강남논현점, 마곡사이언스타워R점, 별다방점, 보라매공원R점, 여의도IFC몰(L1)R점, 역삼이마트점, 용산역씨밋R점, 청담스타R점, 환구단점) 매장에서 내달 20일부터 25일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홀케이크 /스타벅스

까지 수령할 수 있다.

이달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약할 수 있는 '밀레앙 딸기 프렌치 플랑', '딸기 촉촉 초코 생크림 케이크', '홀리데이 더블 크림 트리 바움쿰', '산타 베어리스타 딸기 케이크', '스노우크레이프 브쉬드 노엘' 등 크리스마스 홀케이크 5종도 선보인다.

케이크 수령은 내달 20일부터 25일까지이며 예약 시 지정된 매장을 방문하면 된다.

/신원선 기자

세븐일레븐, '세븐셀렉트 이비가짬뽕' 출시

세븐일레븐은 연말 시즌을 맞아 새로운 RMR 상품으로 국내 인기 짬뽕 맛집 '이비가짬뽕'과 콜라보한 '세븐셀렉트 이비가짬뽕'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비가짬뽕'은 짬뽕의 달인이라 불리는 권혁남 셰프가 개발한 비법 짬뽕 레시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이 즐거워 계속 '입이 간다'는 뜻으로 브랜드명을 이비가짬뽕으로 명명하게 됐다.

세븐일레븐은 이비가짬뽕과 손잡으며 실제 매장에서 먹는 맛과 동일하게 상품을 구현해내고자 했다. 사골육수를 베이스로 굴, 새우 추출물이 들어간 이비가짬뽕 비법소스와 함께 양배추, 목이버섯, 호박 등 풍성한 건더기를 구성해 매장에서 판매하는 맛과 비주얼을 최대한 동일하게 구성했다.

/최빛나 기자

K-뷰티, 1세대의 귀환... 유통 확대·브랜드 런칭으로 재도약

호실적 달성, 글로벌 입지 강화
토니모리, '본샵' 시장 점유율 확대
에이블씨엔씨, 해외 직수출 본격화
피피비스튜디오, 협업 통해 美 공략

과거 K뷰티를 성장시킨 주역이었던 1세대 로드샵 브랜드들이 재도약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450억원, 영업이익 3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각각 22.2%, 58.6% 증가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실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1339억원의 매출과 109% 급증한 11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토니모리는 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 매장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널 진입으로 성장동력을 마련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토니모리 전체 사업에서 유통 매장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분기 기준 약 12%로, 지난 2023년 16% 수준에서 줄었다. 반면 PX 군마트, CJ올리브영, 다이소 등 신채널 비중은 약 7%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2023년 0.6%에서 커졌다. 특히 토니모리는 올해 4월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 전용 브랜드 '본샵'을 선보인 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브랜드 공개 5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은 100만 개를 돌파하고, 제품군은 기초 화장품 6



토니모리 브랜드 모델 가수 청하가 갯잇트트 클레이즈밤을 소개하고 있다. /토니모리

종에서 색조 화장품 13종으로 확대되는 등 본샵은 판매 호조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토니모리는 자회사인 메가코스를 통해 전개하고 있는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제조자 개발생산) 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신규 고객사 확대로 수주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메가코스의 올해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25.4% 증가했다는 것이 토니모리 측의 설명이다.

토니모리가 공시한 분기보고서를 살펴보면, 메가코스의 기초 제품 생산공장 가동률은 2022년 37%, 2023년 45%, 올해 3분기 64%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색조 제품 생산의 경우



지난 9월 도쿄 하라주쿠에서 열린 에이블씨엔씨 대표 화장품 브랜드 미샤의 신제품 발표회에서 브랜드 앰버서더인 걸그룹 트와이스의 사나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에이블씨엔씨

해당 시설 가동률은 각각 42%, 57%, 72% 등이다. 이에 따라 토니모리는 올해 메가코스 공장에 자동화 설비 도입과 생산설비 증설을 추진하는 등 자체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

에이블씨엔씨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면서 다시 도약하고 있다.

에이블씨엔씨는 올해 3분기 매출액 629억원, 영업이익 39억원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653억원 대비 3.7%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억원보다 187%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에이블씨엔씨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954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141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24%를 초과 달성한 규모다.

에이블씨엔씨는 글로벌 뷰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으로 유럽, 중동, 일본 등 해외 시장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경로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에이블씨엔씨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은 57%에 달한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53%, 56%의 비중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에이블씨엔씨는 해외 직수출을 강화해 매출 외형 확대와 이익 창출이 가능한 수의 구조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내 뷰티렌즈 로드숍에서 글로벌 K뷰티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패

션뷰티 e커머스 기업 피피비스튜디오는 미국 현지에서 신진 K뷰티 브랜드 티르티르와 협업에 나선다.

피피비스튜디오는 앞서 지난 20일 미국 마이애미에 자사 뷰티렌즈 브랜드 '하파크리스틴' 플래그십 스토어2호점을 새롭게 열었다. 이번 매장 개장은 올해 2월 미국 LA 대표 패션거리 멜로즈 애비뉴에서 문을 연 '하파크리스틴' 단독 매장 이후 두 번째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핑크색 외관과 90평의 1호점보다 넓은 120평 공간을 갖췄다.

무엇보다 오는 12월 4일부터 해당 매장에서 '티르티르 코스메틱존'이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북미 현지 소비자들 개인 맞춤형 색상 진단, 메이크업법 추천, 하이앵글 포토부스 제공 등 다양한 K컬처에 기반한 K뷰티를 경험하도록 기획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피피비스튜디오 측은 "검안이 필요한 뷰티렌즈의 특성을 특화시켜 고객들이 매장에 머무는 약 1시간 동안 차별화된 콘텐츠들을 선보여 하파크리스틴과 협업 브랜드 모두를 두루 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뷰티 업계 관계자도 "K뷰티 브랜드가 글로벌 무대 데뷔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조 시설 확충, 브랜드 협업 등 뷰티 산업 전체가 원팀으로 상생하는 상호작용도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연말엔 ‘이색 트리·포토존’서 멋진 사진 찍어볼까?”

호텔업계, 인증샷 마케팅 전략 강화
켄싱턴리조트, 금빛 감굴 트리 설치
글래드호텔, 나무 소품 등 활용 장식

호텔업계가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본격적인 손님맞이 준비에 나섰다. 이색적인 크리스마스트리를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새로운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등 포토존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호텔들은 로비와 라운지에 독창적인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며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크리스마스트리를 활용한 인증샷 마케팅으로 고객의 발길



워커힐 야의 피크닉 공간 '포레스트 파크'에 설치된 대형 트리.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을 끌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전략은 '주목 경제'의 확산과 맞물려 있다. 주목 경제는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이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

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포토존 마케팅은 주목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도록 유도해 추가적인 관심을 끌어내는 전략이다.

실제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기업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1인당 인스타그램 평균 실행 횟수는 574회로 지난 2021년 2월 이후 122% 증가했다.

이에 호텔업계는 연말 특수를 겨냥해 크리스마스트리를 활용한 공간 연출과 인증샷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이랜드파크의 켄싱턴호텔리조트는 지역색을 입힌 이색 크리스마스트리를

선보인다. 켄싱턴리조트 제주중문·서귀포점은 금빛 감굴 나무 장식을 활용해 '대형 감굴 트리'를 설치했다. 제주의 겨울을 주제로 트리를 이색적으로 연출했다는 게 호텔 측 설명이다.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는 강원도의 겨울 숲을 테마로 한 이색 트리를 전시한다. 트리는 자연 소재 장식물과 숲속 다람쥐 인형으로 꾸며졌다.

글래드호텔 역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글래드 크리스마스 포토존'을 선보인다. 글래드호텔의 매종 글래드 제주는 '오두막에서 보내는 글래드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서울 노들섬에 화장품 공병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다. /아모레퍼시픽재단

아모레퍼시픽재단 ‘화장품 공병 트리’ 전시 “새 가치창출 의미 전달”

아모레퍼시픽재단이 오는 2025년 1월 18일까지 화장품 공병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를 서울 노들섬에 전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시 야외 전시이며 점등 시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다. 아모레퍼시픽재단은 노들섬 공병 트리를 관람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새해의 소망을 담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재단에 따르면 '다시보다, 희망의 빛 1332'라는 이름으로 설치된 이번 공병 트리는 노들섬 초청 협력 전시의 일환이다. 아모레퍼시픽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은 앞서 지난 5월 '노들컬처 클러스터' 협약을 맺었고 이후 '노들 윈터 페스타'와 연계해 공병 트리를 선보이게 됐다. 특히 지난 2023년 서울 세종문화회관 프락에서 전시했던 '희망의 빛 1332'를 재활용해 의미를 더했다는 것이 아모레퍼시픽재단 측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국내외 데노수맙 시장 공략 속도” GC녹십자, 이중항체 기반 ADC 개발 박차

스토보클로·오센벨트 국내 허가 획득

셀트리온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와 엑스지바(성분명: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오센벨트'의 품목 허가를 동시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국내 승인은 프롤리아와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로는 첫 번째 허가로, 스토보클로와 오센벨트는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스토보클로'는 폐경 후 여성 골다공

증 치료, 남성 골밀도 증가 치료 등 프롤리아 전체 적응증에 대해, '오센벨트'는 암 환자에서 나타나는 골 전이로 인한 골격계 합병증 예방을 비롯해 골격대체 포종 치료까지 포함하는 엑스지바 전체 적응증에 대해 품목 허가가 이뤄졌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프롤리아와 엑스지바는 동일한 주성분을 갖췄고, 각각 골다공증 치료와 암환자 골 전이 합병증 예방에 쓰이는 치료제다. 해당 의약품이 지난 2023년 기준,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올린 매출은 약 8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청하 기자

카나프테라퓨틱스와 개발 협력

GC녹십자는 지난 21일 신약개발 기업 카나프테라퓨틱스와 '이중 항체 기반 약물접합체(ADC) 치료제'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GC녹십자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는 옵션 권리가 포함됐다. 카나프테라퓨틱스가 개발하고 있는 이중 항체를 갖춘 ADC 후보물질이 양사가 합의한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GC녹십자가 옵션 행사를 통해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형태다. 양사는 계약 규모를 비롯한 기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양사가 계약을 체결한 이중 항체 기반 ADC는 고형암에서 발현하는 다양한 타깃을 표적할 수 있는 기전을 갖춰, 보다 폭넓은 환자군에서 치료제로 개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치료제에 약물 내성을 보이거나 부작용을 겪는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어 미중증 의료 수요가 크다는 것이 GC녹십자 측 설명이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항암 및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협력해 혁신신약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신혼부터 미리미리

미리 내 집

서울 신혼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미리 내 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혼부부 집 걱정 없이

미리내집

미리내 집(20년 전세자가주택)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고, 입주 이후 출산 가구에게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결혼 예정 및 7년 이내
서울 신혼부부
(자녀 유무 무관)



39㎡부터 84㎡까지
다양한 평형



입주 후 아이 출생 시
최장 20년 거주



2자녀 출생 시
시세 90% 매입
(3자녀 시 80%)



NHN, '독서경영 우수직장' 신규 인증 획득

NHN이 '2024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는 직장 내 독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기업과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능력협회컨설팅이 주관한다. NHN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 세분화된 도서 카테고리 운영과 임직원 도서 추천 프로그램 시행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NHN



네이버-수출입은행, 첨단 IT 기술 글로벌 진출 '맞손'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21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1784에서 첨단 IT 기술 기반의 글로벌 사업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IT 기반의 스마트시티 해외 개발사업 정보교환 및 사업 공동 발굴 ▲팀네이버가 추진하는 글로벌 사업에 대한 수은의 금융지원 등을 골자로 세 기업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네이버



SGI서울보증,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 실시

SGI서울보증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중앙봉사관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SGI서울보증 임직원 봉사단 SGI 드림파트너스 단원 20여명이 직접 만든 김장 김치와 간단한 반찬을 종로구 내 경로당과 취약계층 약 250가구에 전달했다.

/SGI서울보증



롯데호텔서울, 지역사회에 김치 800kg 전달

롯데호텔서울은 지난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소공30데이 3도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 중구청에 롯데호텔 배추김치 800kg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소공30데이 3도 캠페인'은 매일 30일 진행되는 '소공30데이' 프로모션의 판매액 일부를 기부 활동에 사용하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다. '소공30데이'는 30시간 동안 객실과 식음료를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롯데호텔의 대표 행사다.

/롯데호텔



호서대 게임소프트웨어학과, 공모전서 2연속 수상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규)는 게임소프트웨어학과가 총남정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충청권 게임 인디유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지스타 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스타(G-STAR) 2024'에서 크리에이터스 보이스(Creators'Voice)를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호서대

LG전자, '사회적 기업 육성' 통해 ESG 비전 실천

우수기업 선정돼 장관상 수상
LG소셜캠퍼스, 13년간 운영
190여개 사회적 기업 지원

LG전자가 기후·환경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비전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실천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2일 사회적 기업의 날 기념 행사에서 '사회적 기업 민관협력 활성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사회적 기업 민관협력 우수 사례를 발굴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호적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LG전자는 'LG소셜캠퍼스'를 13



LG전자는 22일 사회적 기업의 날 기념 행사에서 '사회적 기업 민관협력 활성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LG전자

년이 넘는 장기간 운영하며 190여개 사회적 기업의 건강한 자립과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LG소셜캠퍼스'는 LG전자와 LG화학이 사회적·친환경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2011년부터 운영해온 프

그램이다. 현재까지 총 186개 기업, 3000여명의 인재를 발굴해 ▲무이자 대출 및 긴급 자금 ▲인재 양성 및 인적 자원 구축 ▲안정적인 근무 공간 ▲생산성 향상 컨설팅 ▲해외 연수 및 기업 탐방 등 다방면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비즈니스 모

고등교육재단, 미래인재상·양성 논의

창립 50주년 '미래인재 컨퍼런스' 최태원 SK회장도 토크 패널 참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오는 26일 서울 광진구 워커히 호텔에서 창립 50주년 맞이 '미래인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주제는 '인재의 숲에서 인류의 길을 찾다'와 '가지 않은 길에서 혁신을 찾다' 두가지다.

이번 미래인재 컨퍼런스에서는 융합적 사고와 협업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상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며, 재단이 지향할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미래세대에 비전과 영감을 제공하기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도전적이고 과감한 질문을 함께 풀어가는 토론의 장도 마련된다.

'인재의 숲에서 인류의 길을 찾다' 주제로 열리는 인재 토크(Talk) 세션에서는 인문계·이공계 학생 200여명과 함께 미래에 요구되는 인재의 핵심 역량을 논의하고 문이과적 감수성과 자질을 모두 갖춘 인재 양성 방향을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함께 모색해본다.

최태원 SK 회장도 인재 토크 세션의 패널로 참여해 이대열 존스홉킨스대 교수, 이석재 서울대 교수 등과 미래 인재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가지 않은 길에서 혁신을 찾다' 주제의 '그랜드 퀘스트' 세션에서는 반도체, 인공지능 등 10개의 과학기술 분야의 도전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각 분야 석학들과 이공계 미래 인재들이 함께 치열하게 논의한다. /김서현 기자 seoh@

박철주 삼육대 교수, 장학기금 1억 기탁

'필립 프런티어 장학기금' 조성

삼육대학교(총장 제해종)는 박철주 경영학과 교수가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필립 프런티어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학과에 1억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장학금 이름인 '필립'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다. 박 교수는 "필립"을 '반드시 필(必)', '설립(立)'으로 고쳐 쓰는 걸 좋아한다"라며 "청년들의 꿈이 갈수록 쪼그라드는 현실에서 큰 꿈을 세우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hj@

인사

◆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 채용▲정책보좌관(별정직고위공무원) 박종운

부음

▲ 이주봉(前 안성파이프 대표·前 제주도바레살기운동협의회 회장)씨 별세, 백도하씨 남편상, 이종훈(前 인천테크노파크 본부장)·미영·종익(前 안성시

스템 대표)·유정(제주시체육회 과장)·미정씨 부친상, 김창수(이에스솔루션즈 대표)·양원석(제주은행 지점장)씨 장인상, 김옥경씨 시부상, 이현석·영숙(국립중앙의료원 약사)·연숙(수출입은행 차장)·현수씨 조부상, 김정현(뉴시스 사회정책부 기자)·고지완·김지한·양형진·양재연씨 외조부상=23일, 제주도특별자치도 제주도 S중앙병원 장례식장 제1빈소, 발인 26일 오전, 010-3292-8301

델 고도화, 서비스 디자인, 유통 마케팅, 임팩트 투자 IR 등으로 구성된 '리딩 그린(Leading Green)'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업의 성장 가속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 최초로 선인장 가족을 개발한 농업부산물 친환경 소재 기업 '그린컨티뉴'가 대표 사례다. 전문 액셀러레이팅, 맞춤형 컨설팅 및 전담 멘토링을 지원 받았고, 올해 9월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이들과 함께 '모두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제19회 금융공모전'에서 수상한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감원, 금융공모전 수상자 161명 선정

총 3331개 작품 접수... 개최처 최다

역대 최대 작품이 접수된 '금융공모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오후 '제19회 금융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19회를 맞은 금융공모전은 금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금융교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올해 공모전은 ▲청소년 금융창작물 ▲대학생 금융콘테스트 ▲성인 금융콘테스트 ▲금융교육 우수 프로그램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2006년 공모전 시작 이래 가장 많은 총 3331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금감원장상 25명, 교육부장관상 4명, 교육감상 35명, 금융협회장상 97명 등 총 161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6개 금융협회에서 회장 및 임원, 심사위원장, 수상자와 가족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의 편리함 이면에 금융 이용 범죄도 심각해진 만큼, 주변에도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공모전 수상작을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해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인하대,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조명우 총장 등 150여명 참여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지난 22일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항공 사회봉사단의 후원 아래 올해 7회를 맞이한 이번 봉사활동에는 인하대 학생, 조명우 총장과 교직원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대한민국 1도 올리기' 캠페인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미추홀구 학익동의 한 마을을 찾아 이웃 주민에게 직접 연탄 4000여장을 전해주었다.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주관한 인하당 대표 문종현(소비자학과) 학생



조명우 총장이 '대한민국 1도 올리기,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서 학생들과 함께 연탄을 옮기고 있다. /인하대

은 "이번 행사에 많은 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저작물 공정이용, 과거사건 적용 불가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와 저작물의 활용에 따른 공익 증진이라는 양자의 균형을 꾀하기 위해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이른바 포괄적 일반조항(catch-all clause)으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은 저작권법의 역사(1957년 제정)를 기준으로 보면 매우 최근에 신설된 조항(저작권법이 2011년 12월 2일에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그래서 위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다)에도 위와 같은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등의 의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지난 7월 대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이른바 '노래비 사건(2021다216872, 2021다216889)'이다. 대법원이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

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을 것이 필요한데,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 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제23조 이하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 저작권법 하에서는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사안에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이용의 법리가 개별적인 제한규정에 대비되는 공정이용의 일반 법리인 점, 그리고 구 저작권법 하에서도 공정이용의 법리를 대신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비영리적 목적 및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 등을 규정한 조항이 그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아서 위 조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과거의 사안에 대해서도 공정이용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 제28조가 공정이용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위 판결에 적용된 구법 기준으로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와 요건이나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

반적인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원심판결에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즉, 공정이용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 조항(제35조의5)은 그 신설 이후부터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널리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과거 실무서 등에서도 구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등의 조항을 공정이용의 법리 적용의 근거로 보는 경우 등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신설된 공정이용 조항을 널리 적용함에 있어서는 시간적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 것이었다.

이처럼 저작권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 뿐만 아니라 개별사안에 관해 적용되는 정확한 법령이 무엇인지(구법/신법 등), 해당 법령의 부칙 등에 경과규정이 있는지 등 법령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무에서 구법/신법 등 법령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따라서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이다. 이 역시 지식재산권이 문제되는 사안과 관련해 실무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다시 한번 K-게임의 시대가 열릴 것



기 지 수첩 최 빛 나 (유통&라이프부)

올해 벌써 다섯번 째로 지스타를 다녀왔다.

매년 설레는 마음으로 지스타 현장을 찾았지만 올해는 더욱 기대가 컸다. 넥슨, 넷마블, 펠어비스 등의 굵직한 게임사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다양한 신작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다양한 장르로 개발된 넥슨의 카잔, 넷마블의 왕자의 게임·몬길, 하이브 M 아키텍트 등 멀티로 게임이 가능한 AA A급 신작들을 보고있자니 새삼 K-게임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 신작들을 체험하고 확인하기 위해 20만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지스타를 방문한 데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중에서도 기자의 눈길을 사로잡은 신작이 있었다. 지난해부터 눈 여겨 보던 펠어비스의 '붉은 사막'이다.

이번에 제공된 시연은 약 40분가량으로 10분 분량의 가이드 영상과, 30분 정도는 붉은사막 게임 안에서 만나볼 수 있는 3가지 보스들과의 전투 콘텐츠였다.

익숙하지 않은 콘솔기이라서 것과 한정된 시간이라는 점에서 기자는 보스(사슴왕) 1가지만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체험하는 30분 내내 '우와, 대박이다, 와' 등 감탄사가 끊임없이 나왔다. 화려한 비주얼 때문이다. 바람이 날리는 나무가지, 머리 카락, 풀숲, 불씨, 보스의 털, 갈대밭 등 게임 전반의 비주얼이 매우 디테일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표현했다.

압도적인 비주얼과 퀄리티 덕분에 화려한

액션과 바력넘치고 뛰어난 타격감은 도파민을 분출시키기에 충분했다. 글로벌 게임쇼 게임스컴, 도쿄게임쇼 등에서 붉은사막이 항상 언급되고 있는 이유도 이해가 됐다.

게임 분야를 담당할 지 처음으로 콘솔 게임기 구매 욕구가 자극됐다. 붉은사막이 6년이라는 개발 기간을 가진만큼 유저와의 멀티플랫폼, 별도의 IP 등 작품이 목표표로 하는 비는 수시로 변화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유저들이 붉은 사막을 꾸준히 응원하는 이유는 오래 기다린 만큼 완벽한 게임이 나올 거라는 확신 때문 아닐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임시장에 붉은사막 출시를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같은 존재가 될 것 같다. 붉은 사막을 통해 K-게임이 다시 한번 전 세계로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달 수 있을 기대해 본다. 내년 출시될 '붉은사막'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vitn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25일 (음 10월 25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노후대비는 절약이 수전노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48년생** 놀러 갈 생각으로 지출이 과다. **60년생**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시비도 있다. **72년생** 단체에서는 아집보다는 소탈하게 손리에 따르도록. **84년생** 불평은 발전에 저해가.
- 37년생**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도. **49년생** 은행 대출도 결국에는 빚이다. **61년생** 할당 담보 질권을 체크해 보시길. **73년생** 젊지만 꾸미지 않은 소탈함으로 존경을 받게 된다. **85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다.
- 38년생** 명품은 자신의 행동부터 명품이 되길. **50년생** 현재 재물이 있는 것은 하늘의 은총이다. **62년생** 서두르는 가운데 사고가 염려된다. **74년생** 만사는 초기부터 계획을 착실하게 해서. **86년생** 가정에 충실한 만큼 나이에 복이 온다.
- 39년생** 양보의 운전은 미덕. **51년생** 나쁜 인연이라 생각이 되면 애초에 만들기를 꺼려라. **63년생**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차차 나이 들면서는 특히. **75년생** 오후 서남쪽에서 재물은 얻는다. **87년생** 선배를 왕따시키려는 배울 것은 배워라.
- 40년생** 인색하다 보니 지인이 등을 돌린다. **52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라도 양보할 땐 양보해야 **64년생** 친구의 애경사는 참석하는 것이. **76년생** 남들이 이루지 못한 일을 잘해나기 보람. **88년생** 만남에서 음주에 유의하여야만.
- 41년생** 이성을 두고 양다리 걸치며 비교 마라. **53년생** 노력 없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 **65년생** 온갖 약하니 새로운 일은 만들지 마라. **77년생** 이웃과 상부상조해야 딱이 생긴다. **89년생** 직장에서 승진도 순조롭게 된다.
- 42년생** 너무 작은 것에 연연하다 큰 것 놓친다. **54년생** 오후에 결과는 좋다. **66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격이다. **78년생** 감정보다는 언제나 인연 법은 훗날도 생각해야 한다. **90년생** 가뭄만사성이라 했지만, 가정에 좀 충실하.
- 43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으로 갈수 있다. **55년생** 성과가 없어도 힘내라. **67년생** 평소 지독함으로 고립무원이다. **79년생** 협조라 하면 능력 선에서 주변에 금전 지원을 해줄 수도 있어야. **91년생** 의지력이 작지만 성실한 결과를 얻는다.
- 44년생** 상부상조하는 것도 사회생활의 일부. **56년생** 운이 좋지 않으니 운전엔 방어 운전으로 조심. **68년생** 실수는 따르나 걱정이 해소된다. **80년생** 30세가 되면 인생관이 서야 한다는 이립(而立). **92년생** 청소와 문화생활로 주변을 건강하게.
- 45년생** 흰색이 행운을. **57년생** 인내는 오히려 나쁜 상황으로 발전되는 복을 불러온다. **69년생** 미리주고 전전금금(戰戰兢兢) 하지마라. **81년생**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되지 않는다. **93년생** 운전할 때 항상 자신이 양보하는 것을 생활화.
- 46년생** 사고에 대비는 유혹을 뿌리치는 것. **58년생**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관용을 베푸는 것도. **70년생** 뜻하지 않은 곳에서 기쁨을 얻는다. **82년생** 그득하고 예스러운 한옥에서 살고프면 저축하여 준비. **94년생** 태산을 넘으면 평지가 나온다.
- 47년생** 소소한 일에 과민반응 보이게보다는. **59년생** 희망이 있으니 실망은 금물. **71년생** 이름답지 않은 인연은 멀리하자. **83년생** 강의를 들을 때 배울 것이 없어도 경청하라. **95년생** 직장 내에 문제가 복잡해도 성실하 본인 할 일은 해야만.



김상희의 4계 순환하는 운세

안달복달하면서 사는 게 인생사이다. 당장 눈앞의 어려움 때문이다. 중요한 시험을 치러야 하거나, 회사에서 승진에 자주 탈락하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결혼을 둘러싼 갈등 같은 문제로 속을 태운다. 그렇게 쫓길 때 지금 운세가 어느 쪽으로 강한 기운을 뽐는지 아니면 운세가 힘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를 봐야 한다.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에 오리털 패딩을 팔려고 나서면 어떻게 될까. 추위로 온몸이 떨리는 겨울에 아이스크림으로 돈을 벌겠다고 사업을 벌이면 어떨까. 사람이 살아가는 일은 어찌 보면 무척 단순하다. 모든 건 다 진퇴의 시기가 있고 때를 잘 맞추면 흥한다. 운세가 시드는 시기에 사업을 시작하고 안달복달하는 사람이 상담을 왔었다. 운세가 힘이 없으니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 대출받은 돈을 다 썼는데 매장은 문도 못 열었다. 자금 예측을 잘못한 것이다. 기다렸다 사업을 시작하라고 했는데도 조금씩 일을 벌인 결과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나쁜 운세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천덕귀인의 운세가 열리니 도움을 줄 사람이 분명 주변에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흐름대로 친척 형님이 자금을 융통해줬고 사업은 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무 속을 태우지 말고 운세의 흐름을 짚어볼 것이다. 사람은 자기만의 대운과 세운이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루거나 불화를 보이면서 나름의 순환을 이룬다. 운세도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순환 주기가 있다. 자기 운세의 순환 주기에 맞추어 일을 벌이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어느 시기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생긴 문제는 또 어느 시기가 되면 해결된다. 사람의 일과 운세는 주기와 흐름이 있으니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방법을 찾으면 된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6	1	5	3			
6								
				3	6			
1			9			7	8	
7							6	
8	6		2					4
		2	9					
								9
9	6		7	5				8

			5		6			
7								3
	4		9	2				7
		4	2	5				
	2						4	
			3	6		1		
3			1	8			7	
6								5
		8			3			

8	9	2	9	1	9	6	7	
6	9	7	2	8	1	1	9	
9	1	1	7	9	6	2	8	
7	9	1	1	2	8	6	9	8
9	2	6	1	8	9	8	7	1
8	1	8	9	6	7	9	2	1
1	6	9	8	6	1	8	9	7
1	7	8	6	9	2	1	8	9
2	8	9	8	1	9	7	1	6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5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66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제조업 줄고, 소상공인 경기 악화 내수부진 한파에 서울 경기 '꽝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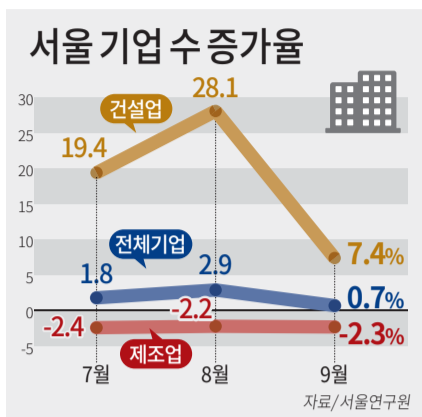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동향' 발표
제조업 등 감소, 기업 수 증가 둔화
가계·기업 대출 증가... 연체율↑

내수 부진이 지속되며, 서울 지역의 경제 활동 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경기 진단이 나왔다.

24일 서울연구원의 '서울경제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서울의 기업 수는 제조업체와 창업기업 수 감소로 증가세가 둔화했으며, 소상공인 경기 전망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9월 서울의 기업 수 증가율은 0.7%로 전월(2.9%)보다 하락했다. 산업별로 건설업은 7.4%, 제조업은 -2.3%를 기록했다. 5인 미만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 수가 전년 동월과 비교해 감소했다. 5~29인 규모 기업의 경우 각각 4.0%, 1.5% 줄었다.

지난 8월 서울의 창업기업 수 증가율(-11.7%)은 개인 창업기업 중심으로 전월(1.1%)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개인 창업기업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8%, 법인 창업기업 수는 3.5% 쪼그라들었다.

제조업 업황 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은 지난달 73에서 이달 71로 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업황 BSI 전망치도 74에서 72로 2포인트 떨어졌다. BSI는 사업체의 실적에 대한 사업자의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다. BSI가 기준선 100보다 높으면 전월보다 경기가 긍정적이라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사업자가 느끼는 체감경기가 전월보다 악화됐다는 뜻이다.

올 11월 서울 소상공인 BSI 전망치는 79.1로 지난달 85.2와 비교해 6.1포인트 하락했다. 전통시장의 이달 BSI 전망은 전달(87.1)보다 4.9포인트 내린 82.2였다.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부진이 이어지면서 소비경기도 위축됐다. 지난 9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3.4%로 전월(0.0%) 대비 감소했다.

올 9월 서울의 소비경기지수(-3.1%)는 숙박·음식점업의 부진으로 전월(-1.2%) 대비 하락폭이 커졌다.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지난 8월 0.4%에서 9월 -0.8%로, 숙박·음식점업은 -3.9%에서 -7.0%로 각각 1.2%포인트, 3.1%포인트 감소했다.

서울의 가계와 기업의 대출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체율 상승세도 지속됐다. 올해 8월 서울의 예금은행 가계 대출은 전월 366조9000억원보다 4조 1000억원 늘어난 371조원을 기록했다.

서울 중소기업 대출은 전월(357조원)과 비교해 3조원 불어난 360조원으로 집계됐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새벽 자율주행버스 내일부터 서울 달린다

내일 새벽 3시 30분부터 운행
'A160번' 도봉구~영등포구 연결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서울시

남들보다 빨리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노동자들의 출근길 고단함을 덜어 줄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가 서울 시내를 달린다.

서울시는 주간에 도봉구와 영등포구를 잇는 노선 160번 앞에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A'(Autonomous)가 붙은 'A160'번이 오는 26일 운행을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A160번은 새벽 3시 30분 도봉산광역환승센터를 출발해 영등포역까지 25.7km 구간을 오가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로, 평일에만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주간에 운영되는 '160번' 노선은 오전 3시 56분, 다른 버스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간대에 2대가 동시 운행을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종로·여의도 등 업무시설 밀집지역을 경유하다 보니 혼잡한 경우가 많아 증차

하거나 첫 차 출발 시간을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A160은 기존 160번 노선을 일부 단축해 도봉산광역환승센터~쌍문역~미아사거리~종로~공덕역~여의도환승센터~영등포역을 운행하며, 87개 일반 시내버스 정류소에 정차한다.

안정화 기간까지는 당분간 무료로 운영되나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탑승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3개 권역에 'RE100 특구' 추진

오는 28일, RE100 포럼 개최

경기도가 오늘 28일 '2024 경기 RE100 포럼'을 개최하여 발전수익의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적화(클러스터)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 RE100 특구'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경기도는 도를 서해안, 북부, 동남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내년부터 참여 시군 공모에 나선다. 경기도 '재생에너지 공급난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100% 사용하는 '글로벌 RE100' 캠페인이 진행 중이며, 한국에서도 36개 기업(29개 기업의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 소재)이 참여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물량 부족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RE100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경기 RE100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 RE100 특구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4월 24일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제시한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가지 분야 13개 과제 가운데 하나다.

민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발전과정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도가 주민 수용성·환경성 등 적합 부지를 발굴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계획입지'를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적화할 방침이다.

도는 '경기 RE100 특구'를 크게 3개 권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3개 권역은 ▲시화호 일대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 벨트권 ▲평화누리공원 주차장, 연천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등을 활용한 북부 평화경제 벨트권 ▲상수원 보호구역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자전거 도로 등 공유부지를 활용하는 동남권 등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연대 논술 추합 120%... "정시 이월시 파장"

(지난해, 자연계)

연세대 논술 추가합격 비율 매우 높아
최상위권 이공계열 합격선 시각변동

지난해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전형 추가합격률이 1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문제유출' 논란을 겪는 연세대가 해당 전형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경우, 자연계열 최상위권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합격선 변화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전형에서 모집정원(250명) 대비 120.5%에 해당하는 312명이 추가합격했다. 해당 전형 최조합격자 전원이 등록을 포기하고도 20%가량이 등록하지 않아, 차

순위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입학권이 부여됐다는 의미다.

연세대 자연계 응시자는 서울대 이공계나 타대학 의약학계열에 동시 지원했을 가능성이 커 이들 대학에 빠져 나간 결과로 보인다.

이같은 규모의 수시 모집 인원이 정시로 이월될 경우, 최상위권 이공계열 합격선에 시각변동이 있을 것인 분석이 나온다. 최근 연세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으면서 해당 전형 모집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 변수 외 연세대 자연계

논술 변수도 의약학계열 및 타대학 추가합격에 상당한 영향력 변수로 볼 수 있다"라며 "연세대 논술전형 자연계 추합비율이 120.5% 논술 전형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매우 높고, 합격자 대부분이 서울대, 의약학계열 등으로 중복합격 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세대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정시로 전월 이월될 경우, 정시 합격선, 정시 추가합격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며 의대 모집정원 확대에 준하는 상당한 입시 변수로 부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4학년도 의약학계열 추가합격자는 전국 99개 대학에서 3333명 발생했다. 선발인원(3289명)의 101.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현진 기자 lhj@

자사고였던 이화·금란고, '이음학교'로

이화·금란중과 통합운영학교로 운영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로 운영되던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속 이화·금란고)가 내년 3월 일반고로 전환과 동시에 이대부속이화·금란중학교와 통합운영학교

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이대부속 이화·금란고와 이화·금란중을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로 지정·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음학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해 운영하는 학교 모델이다. 인력·시설·기자재 등 한정된 교육자원을 공동 활용하며, 학사를 통합·관리한다. 현재 서울에서 ▲해누리초·중 ▲강빛초·중 ▲서울체육중·고 ▲일신여중·잠실여고 등 4곳이 운영 중이다.

이대부속 이화·금란 중·고 이음학교는 내부 사전 준비를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22 | 해질 / 17:16

11월 25일 (월)
음력 : 10월 25일

수도권 날씨
4 ~ 15°C

운동 지수: [진행률 표시]
빨래 지수: [진행률 표시]
세차 지수: [진행률 표시]
외출 지수: [진행률 표시]

지역별 날씨: 연천 -1/14, 동두천 0/14, 가평 -1/14, 파주 -1/14, 서울 4/15, 양평 1/14, 인천 5/15, 수원 3/14, 용인 3/14, 백령도 8/13, 평택 2/1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트럼프, 농무장관에 롤린스 지명... 장관 인선 마무리 /사진 뉴시스
▲유엔기후총회 COP29, 선진국 분담금 '최소' 연 3000억달러 합의 폐막

▲연준 "美 정부채무 부담, 금융안정에 최대 위협" 지적
▲"러시아, 나토국 회원국에 사이버 공격 가할 준비 마쳐" 英 장관



▲日, 한국 불참에도 사도광산 추모식 강행 방침
▲아랍 에미리트 파견 유대교 랍비 실종... 이스라엘은 테러 의심 /사진 뉴시스



빙그레 지배구조 개편 본격화
L1



Life

K-뷰티 1세대 로드샵 재도약
L2



방화복의 재탄생... “업사이클링으로 순환경제 기여하고파”



새벽을 여는 사람들

소방장비 업사이클 ‘119레오’ 이승우 대표

차량 정비소로 가득한 경기도 안산시 사동정비단지 사무실에서 만난 이승우 119레오 대표는 곧 예정된 신(新)공장 개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119레오는 소방장비 업사이클링(Upcycling·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전문 기업이다.

119레오는 내구연한이 지난 방화복, 방열복 등의 소방장비를 소방관서에 가져와 세탁하고 해체한 후 디자인을 더해 현대적인 감각의 가방과 액세서리로 재탄생시킨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소방관을 돕기 위해 시작한 동아리가 119레오의 시작이다. 레오는 서로를 구한다(Rescue Each Other)는 뜻이다.

119레오는 수익금 일부는 시민들을 지키다가 다친 소방관이나 그들을 지원하는 시설에 기부한다. 예를 들어, 119레오에서 판매 중인 ‘영웅의 집’ 키링의 수익금은 공무상 상해를 입은 ‘소방관의집(영웅의집)’ 정비와 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 실제로 소방관이 화마에 뛰어들 때 입었던 방화복인 만큼, 지울 수 없는 소방관의 땀과 열정이 배어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119레오는 방화복에서 해체한 아라미드 펠릿을 설비(가운데 사진)에 넣고 신제품의 90~95% 성능을 갖춘 리사이클링 아라미드 단섬유를 뽑아낸다.

◆“첨단소재 아라미드, 다양한 산업 영역에 활용 가능”

소방장비 업사이클링으로 영역을 넓혀온 119레오는 업사이클링 의류 사업에 더해 방화복에서 특수첨단소재인 ‘아라미드(Aramid)’를 뽑아내 상품화할 예정이다. 아라미드는 내열성과 인장강도가 뛰어나 소방 장비, 항공 우주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각광받는 섬유다.

이승우 대표는 아라미드에 대해 설명하며 “실이 격자로 짜여져서 원단이 되고, 단섬유가 꼬여서 실이 된다”며 “방화복은 단섬유 중에서 아라미드라는 특수첨단소재를 활용해서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아라미드가 굉장히 고부가가치 소재인데, 방화복 안에 아라미드 원단을 풀어 해치면 단섬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방화복에서 아라미드 펠릿을 리사이클링해 아라미드 단섬유로 만들면 원래 아라미드 성능의 90~95%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대표는 공장 한가운데 있는 설비를 가리키면서 “방화복에서 뽑아낸 재활용 아라미드로 원단을 만들고, 그 원단으로 방화복도 만들 수 있고 의류를 만들 수 있다”며 “더 나아가, 텐트라든지, 더 많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아라미드 자체가 방염성이나 내구도가 강해서, 전기차는 차체 중량이 더 많이 나가서 일반 차량과 다르게 타이어에 아라미드 보강이 들어간다. 이와 같이 119레오도 아라미드 단섬유와 연관되는 새로운 사업의 영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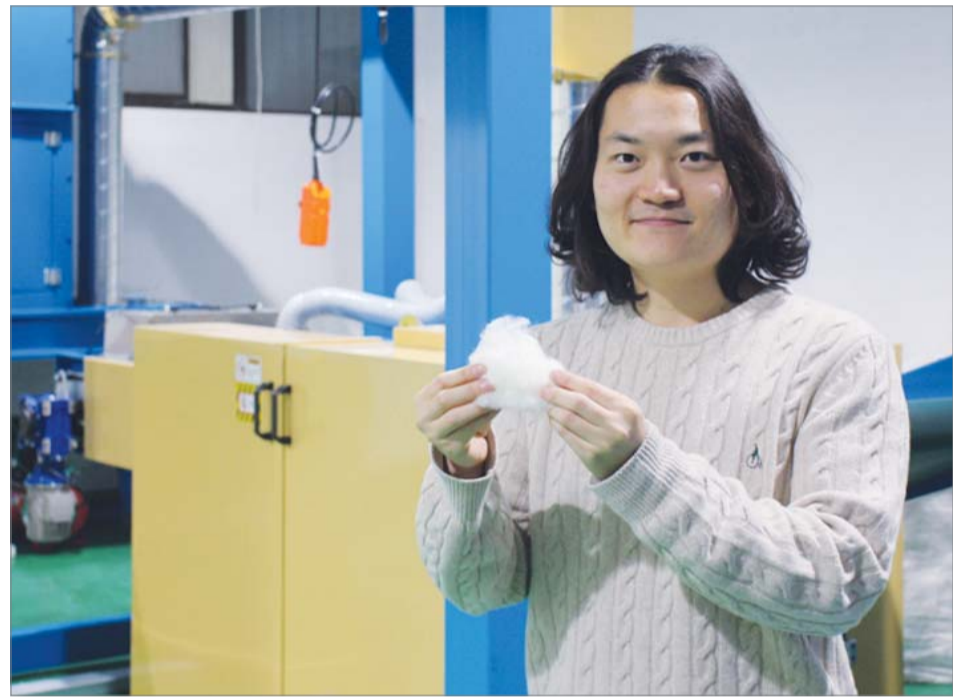
119레오는 소방관서와 MOU(전략적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방화복을 걷어 오고 있다. 119레오 추산에 따르면 사용기한 3년인 방화복을 폐기해야 하는 물량만 연간 70톤이다. 이 대표가 들여온 아라미드 업사이클링 설비는 1년에 20톤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119레오에서 수거한 방화복은 재활센터에서 해체 작업을 거친다. 안산 공장에 아라미드가 펠릿 형태로 오면, 기계에 넣고 단섬유로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부산물이나 불순물은 걸러지고 실뭉치 모양의 아라미드 단섬유가 리사이클링된다.

◆“5~10년 안에 선두기업 목표” 자신감

방화복을 뜯어내 아라미드 펠릿을 확보하고 이를 단섬유로 만드는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아라미드 사업에 가능성을 보고 기술 개발 단계부터 뛰어든 것이 올해로 3년 차다.

이 대표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년 더



이승우 119REO 대표가 지난 20일 경기도 안산시에 개소할 공장에서 아라미드 단섬유 뭉치를 들고 미소를 짓고 있다. /박태홍 기자



소방장비 업사이클링 전문기업 운영 방화복서 특수소재 ‘아라미드’ 뽑아 트ренд 담긴 가방·액세서리로 재탄생 수익금 일부, 소방관 지원시설 기부

리사이클링 가격 강점... 경쟁력 충분 글로벌서 뒤지지 않는 기술력 키울 것

힘들어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장 운영은 새로운 사업을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다 보니 엄청 재밌다”면서도 “이제 과정에서 힘들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9레오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진짜 많은 분이 도와주셨다”며 “처음에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관련 교수님들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아라미드 관련해서 어느 업체를 찾아가 보라든지 연결도 해주시고, 교수님들의 소개가 없었다면 그 업체를 만나서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9레오가 5~10년 안에 글로벌 시장에서 아라미드 리사이클링 영역에서 선두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는 “아라미드 섬유가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류가 개발해 놓은 소재 중에서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전체적인 트렌드로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아라미드 소재가 값이 나가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곳도 있다. 리사이클링 아라미드는 가격 측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방화복과 방화복 업사이클링으로 만든 가방. /119레오

새 아라미드 섬유보다 30~40% 정도의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고 성능도 그렇게 원 아라미드의 90~95%로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위한 순환경제 구축 ‘포부’”

아울러, 119레오는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을 뜻한다.

이 대표는 “공장 공간에도 쓰여 있지만, 119레오의 포부가 ‘탄소 중립을 위한 순환경제’라며 ‘아라미드가 아무리 좋은 소재라고 해도 석유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기존에 있는 걸로 어떻게 순환시킬 것인지, 새 것을 만드는 양을 조금이라도 대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19레오가 특히, 이 아라미드 영역에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도 뒤지지 않게 빨리 기술력을 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119레오의 신공장의 시작을 알릴 개소식은 오는 27일 경기도 안산시 사동정비단지 내에 마련된 신공장에서 열린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중근 특별전 연계 문화체험행사 /사진 뉴스스
▲서초구, 26일 중장년 위한 ‘내국밸리 페스티벌’ 개최

▲‘맨시티전 도움’ 손흥민, 평점 7.8... “최고의 생일 선물됐다”
▲프로농구 소노, 김승기 감독 후임으로 김태술 해설위원 내정



▲이탈리아 국민소설 ‘표범’ 출간... 곧 넷플릭스 시리즈로
▲허정무, 축구협회장 출마 선언... 현대사의 ‘31년 아성’에 도전 /사진 뉴스스

Q LG의 AI / 바이오 기술에 바라는 게 있나요?

내 인생 앞으로도 땡땡!

로드 사이클 매니아 이동석 님은 오래도록 건강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기를 꿈꿉니다. LG는 AI 기반 바이오 기술로 신약개발의 속도를 높여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매니아
28세 이동석 님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